

8. 염치읍

가. 염치 마을 1 (백암 2리)

1) 조사일정

1993. 1. 19., 전연속 기록

19일 10시 30분 조사자들은 현충사 뒤쪽을 끼고 있는 백암리에 도착했다. 먼저 고개를 하나 넘어 백암2리로 향했다. 노인회관에 모여 있던 할아버지들은 대체로 거나하게 취기가 돌아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을 수 있었다. 고종석 씨로부터 <효성스런 며느리가 얻은 산삼>, <백암 1리의 옛 이름>을 들었고, 최명재 씨로부터 <이완부인의 꿈 해몽>, <수원 방씨가 온양 방씨로 낙향하게 된 원인인 방 정승> 등을 들었다. 12시 30분쯤에는 다시 고개를 넘고 40분 가량을 걸어 백암1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백암1리는 이충무공의 마지막 손인 분이 상을 당하여 동네가 온통 침통해 있어서 도저히 조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할 수 없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337-815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읍 백암 2리

1993. 1. 19., 권민정 조사

현충사에서 옆길로 들어서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의 마을을 만나게 된다. 현충사 뒤편에 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아서인지 마을을 대하는 느낌이 무척 신선하다. 백암 2리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총 1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 유난히 개가 많이 보이며, 종교는 주로 기독교이다.

3) 구연자

【백암 2리 구연자 1】

백암 2리 노인회관, 고종석(高鍾奭), 남, 62

1993. 1. 19., 권민정 조사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말았다는 고종석 씨는 좀 마른 듯한 외모에 약간 술이 취해 있었으나, 사전조사 때 구연해줄 것을 약속해서인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에게 아주 큰 호의를 보였고, 이야기도 잘 풀어나갔다.

젊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책을 통해 읽은 이야기들을 자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었는데 지금은 거의 잊어버렸다면서 <효성스런 며느리가 얻은 산삼>, <백암 1리의 옛

이름>을 차분하고 자신있게 구연하였다.

【백암2리 구연자 2】

백암2리 노인회관, 최명재(崔銘在), 남, 57

1993. 1. 19., 권민정 조사

약간 곱슬머리에 짙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말을 몹시 빨리 했다. 학력은 중졸이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 같았으며 사주와 손금, 관상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을 자신 있게 잘하고 <이완부인의 꿈 해몽>, <수원 방씨가 온양 방씨로 낙향하게 된 원인인 방 정승>을 구연하였다.

4) 설화 자료

【백암 2리 설화 1】

백암 2리 노인회관. 1993. 1. 19., 한혜인, 전연숙, 권민정 조사

고종석(남, 62)

효성스런 며느리가 산삼 얻은 이야기, 백암1리의 옛 이름

백암 2리 1, 앞

옛날에 부모하고 두 내우가 살고 있었는데 그 효부가 아버지 어머니께 잘 하는 게 말도 못 하거덩.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병환이 깊어 천근 만약을 써도 고치덜 못하.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다가 또 아들도 역시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던 말여. 그러니깐 시아버지하고 둘만 남은 겨. 근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이 효성이 지극한지 옛날엔 이 불을 때까지구 싸립문 백으로 재를 떨어 내부리고 또 와서 시아버지 뜨뜻이 주무시라고 때주고 그러키 정성이 지극했어. 그 때문에 그 쌀 한 대박밖에 없어. 남의 집 품살이 방아 루다가 이러키해서 보리쌀 한 되 가지구서 시아버지 많이 드리구 자기는 쪼끔 먹구 이러키 그러구 지냈어. 그러다가 아침이, 식전이 나가니까 한 쪽에 호랭이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겨.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러 왔느냐.”구 그러니까 호랭이가 머리를 흔드는 겨. 아니라구. 그래 호랭이 입을 쳐다보니까, 옛날엔 여자덜 머리에 비닐 꽃꽂아. 여자를 잡아먹구서 여가, 비녀가 꽃혔더라. 그런니 입이 닫힐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끄내 줬어. 며느리가. 며느리가 끄내주니깐 고맙다구. 고개를 끄떡끄떡하구 호랭이가 가버린거야. 그래 며칠 있다가 그 호랭이가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호랭이 보고 “날 잡아 먹을라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어떡 할거냐?”하니까, 고개를 끄떡끄떡하더라. 타라는 시늉으루다각, 그게. 인저 올라 탄거야. 며느리가. 올라탔는데, 어디루 가는 지 막 달려가더라 말야. 딱 어디서 딱 내려 왔는데, 무수밭에 내려 왔다 이거여. 응? 무밭. 그래 저도 배가 고프니까 무래도 실컷 뽑어서 먹은 거야. 먹고 인저 행주치마에다가 시아버질 갖다 드릴라고 썼어. 싸가지고 막 올리구 하니까 그 호랭이가 또 나타나더라. 그래 또 타라는 거지 뭐. 그래 탔어. 타니까 집 앞에 와서 탁 내려놓더라. 그래 시아버지 있는데 “아버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가 무를

좀 뽑아왔는데 이것 좀 드시겠습니까?” “어찌 동지 선달에 무가 있느냐?” 그래 떡 보니 “아가야, 이진 인삼이다.” 이거여. 산삼, 산삼, 산삼이지. 인삼이 아니고 산삼이지. 그래서 그 삼을 시아버지가 고을, 지금으루 말하면 군수한테 갖구가서 “이 인삼을 나라의 상감님께 바치십쇼. 이거 우리 며느리가 캐온건데 잡수십쇼.” 그래 이걸 이러키 이러키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상감님이 “이게 어떤 고을의 누가 캐서 보냈느냐?”산삼을. “알려다오.” 하니께 그 군수한테 이러키해서 알잖어. 그러니께 그 상감님이 “이 여자는 효녀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군수한테 애길 해가지구 아주 잘 살게 해줬다.

백암리가 왜 뱀발이냐. 이게 그 때부텀 나오는 얘기야. (조사자: 뱀발이요?) 뱀. 뱀발. 뱀발이여. 뱀이 많이 나와서 뱀발이라 구러는 거야. 그래 나도 들은 애긴데 이순신 장군 아버지가 서울서 살다가 하두 가난해가지구 일루 이사를 와가지구, 집을, 집을 질 수가 없어. 집터가 있어야 짓지. 남의 동네 와가지구.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질러구 터를 닦는 거. 하루는 꿈에 호랭이가 나타나더니 “너희덜 여기다 집을 지면 너희 아들을 내일 데리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맘대로 해라 그거야. 그래 또 가서 집터를 닦는 거야 거가. 그 터를. 점집 때 났는데 집에 와가지구 큰아들 죽었잖아. 아, 그러니 갖다 또 묻구. 그래 또 하는 거야. 또 저녁에 “둘째 아들 잡아 갈테니 그런 줄 알아라.”이거야. 꿈에 “그래, 맘대로 해라.” 또 가서 또. 12시가 딱 되니까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래, 그래도 끄떡 안하고 맘대로 해라 이거야. 또 가서 하는 거야. 집터를 닦는 거야. 그랬더니 두 님덜은 다 잡아가고 “셋째 놈 게는 이순신은 능구렁이니께 니 아들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거기서 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뱀발이라는 게 뱀이 많이 나와가지구 뱀발이라구라는 거.

【백암2 리 설화 2】

백암2 리 노인 회관, 1993. 1. 19., 한혜인, 전연숙, 권민정 조사

최명재(남, 57)

이완부인의 꿈 해몽, 방씨가 낙향하게 된 이야기

백암2리 1 앞

이조시대 효종대왕이 복벌을 계획하고 있을 적이 그때 대장이 누구냐면 이완이가 대장이여. 지금으루 따지면 좌우도통사. 이완대장의 부인이 글자해몽, 꿈 해몽을 잘 하. 근디이 이완대장이 꿈에 무슨 꿈을 꿨느냐 하믄 단장을 가지고 하늘을 꼭 찢렸어, 꿈이. 그래 그 꿈몽을 부인이 보고 애길 한 거. “내가 저 복벌할 시기가 됐으니 이 복벌하는 것이 상감마마한테 청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오늘 뭐라 그라놓고 하면 “안됩니다.” 이거여. 하늘 천자를 떡 써놓고선 가운데 이 단장을 꺼꿀루 쳐 박으면 아닐 미자가 되여. 그래 복벌을 못했다. 그래 옛날 글자루 파악을 잘 했다는 거. 이완 부인이.

방씨덜이 왜 낙향하게 됐냐 하면은 방 정승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천하의 일색이여. 아주 잘났어. 근데 이 방 정승이 딸을 좋은 자리루다 시집 보낼라구 그러질 않구 딸을 겁탈을 할라구했어. 그러니까 그걸 알구 자기 아버지 보고 뭐라구 그랬느냐면 “수채루다가 아버

지 하수구 수채루다가 그리루 드슈.” 이거야. 그리구 그 동안에 목을 메구 죽었어, 딸이. 그 래 옛날에는 왕이 삼정승 육판서를 모여놓고 회담을 열었어. 회의를 하는 거여. 오뉴월에 이 조회를 하는데 이 방 정승의 머리에 서리가 앉았어. 그래 불러가지구 물어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 그래 정승직 박탈과 동시에 그래 그 죽였겠지, 사형으루다가. 그라구 그 방씨네 딸이 온양으로 낙향하는 거야. 그래서 수원 방씨가 원손이구 온양 방씨가 후손이야. 방 정 승 때문에 그러키 된 거야.

나. 염치 마을 2 (염성리)

1) 조사 일정

1993. 1. 18., 박은실 기록

조사 첫날인 1월 18일, 숙소에서 출발하여 오후 2시 30분 경에 염성 1 리 노인회관을 방문 하였다. 약 15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조사자들이 들어서자 하던 일을 멈추고 조사자들을 반겨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먼저 한주현 씨가 삼중지도에 대해 말하였고, 이어서 이황과 숙종, 김삿갓, 단종, 원효 등등이 지은 한시를 써가며 풀이해 주셨다. 이야기 분위기가 조성되자 노인회장인 임공선 씨가 <토정보다 용한 소금장수>와 <토정을 해친 아전>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이 사명당의 후예라며 <일제시대에 사신으로 가서 활약한 사명당>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에 질세라 한주현 씨가 <장병천의 부인이 개가하게 된 이야기>와 <신령의 도움을 얻은 이성계>, 또 <이성계의 등극시간과 더불어 사이가 좋아진 형제> 이야기와 <이천원님과 어떤 부인의 지혜겨루기>, <시골영감의 서울구경>을 들려주었으며, 단종의 슬픔을 노래한 창을 몇 마디 해 주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만교 씨가 염성리의 지명유래에 대해 간단히 말해주었고, 조사자들은 오후 5시경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향하였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11시 30분경 미리 약속해 두었던 쌍죽리 임만재 씨 댁에 찾아갔으나, 마침 장날이어서인지 집에 계시지 않아 조사자들은 서원 2 리로 향하였다. 서원리 노인회관에 찾아갔으나 장년층 서너 명밖에 없었고, 또 조사자들이 아무리 취지를 설명하고 부탁을 하여도 마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노인이 없어서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구연을 거절하였다. 노인회관을 나와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서 소개받은 분께 찾아갔으나 역시 허사였고, 염성리로 돌아와 중식을 하였다. 중식 후 염치읍 사무소에 들러 염치읍 마을들에 대한 사항을 물었으나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오후 2 시경, 사진촬영을 위해 전날 방문했던 염성1리 노인회관에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인근 마을의 노인들까지 합세하여 전날보다 더 성황을 이루었고, 전날처럼 한주현 씨의 한시 풀이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임공선 씨는 <술 얻어먹고 콩씨 얻어준 김삿갓>과 <어린 아이보다 생각이 짧은 박어사>, <맹사성이 맹구부리라고 불리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맹사성 이야기가 나오자 맹사성의 18대 손이라는 맹우제 씨가 <검은 암소를 타고 다닌 맹사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던 강일남 씨가 청중들의 부탁으로 <박색이나 바느질에는 박사인 박어사 부인>과 <맹정승이 태어나게 된 경과>에 대해 들려주었고, 구자현 씨가 <울곡선생>, <오성을 골려준 한음의 부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후 4시 30분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염치 마을 2)

337-810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읍 염성리

1993. 1. 18., 유주연 조사

예전에 마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마을의 지형이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염성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을에는 총 190세대가 살고 있다. 남녀별 인구 차이는 별로 없으며, 종교도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하다.

3) 구연자

【염성리 구연자 1】

염치읍 염성리 47번지, 한주현 (韓周鉉), 남, 70

1993. 1. 18., 이미진 조사

면도를 하지 않아 턱수염이 삐죽삐죽 나있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비교적 말끔한 옷차림을 한 한주현 씨는 어릴 적에 서당을 비롯하여 소학교, 학술강습회 등에서 수학하여 한학에 박학하고 관심이 많은 듯했다. 처음에 조사자들에게 역대왕조나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퇴계 한시>, <오성 선생과 부인의 첫날밤 대화>를 이야기했다. 구연 도중 큰 종이를 방바닥에 펼쳐 놓고 중요한 대목이나 한시들을 직접 써서 설명했다. 현대의 시보다 옛날의 시를 더 높이 평가했고 한시들을 본인 스스로 임의 해석한 것이 많았다. 자신감 있는 말투나 필요 이상의 한자어나 고어의 사용으로 보아 자신의 지식에 자긍심이나 만족감을 갖고 있는 듯했다. 구연시의 독특한 버릇은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고 자주 “대학생들이니께 다 배웠을겨.”라고 말하고 자신의 구연내용이 모두 문헌에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분이 계속 <숙종과 아종의 시작(時作)> <김삿갓이 글로써 혼난 이야기>, <단종의 시>, <이퇴계 시 여러 편>, <황진이 시>, <일본기생 강명화 이야기>, <태조 이성계 이야기>, <이천 원님 이야기> 등을 구연해 주었고 시조를 창으로 읊어 주었다. 조사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노인들 모두 귀기울여 좋은 반응을 보여 시중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염성리 구연자 2】

아산군 염치읍 염성리 85, 박만교(朴萬敎), 남, 64

1993. 1. 18., 이미진 조사.

같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아서인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노인들에게 미안해했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무척 애쓰는 빛이 역력했다. 녹두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누런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유난히 주름이 많다. <염치읍. 염성리

명칭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구연 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테지만…….” 하고 말을 이어가곤 했다. 국민학교를 나왔다는 박만교 씨는 겸손하고 예의바른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이였다. 직업은 농업이고 현직 거주 경력은 61년째이다.

【염성리 구연자 3】

아산군 염치읍 염성리 1구, 임공선(任公先), 남, 75

1993. 1. 18. 이미진 조사

일정시대에 보통학교를 나왔다는 임공선 씨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데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이토정 박사”라고 불리워졌다. 키가 작고 노인정에 모인 분들 중에 유일하게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다정히 빗어 넘겨 깔끔한 인상을 받았다. 사명당이 자신의 조상임을 강조하며 <사명당과 서산대사 이야기>, <사명당과 덕천(도쿠가와)의 내기>를 이야기해 주고 또 <토정과 등집장수의 예견>, <토정이 아전들에게 죽게된 사연>을 얘기해 주었다. 구연 시 독특한 버릇은 무엇을 설명할 때 손짓으로 허공에 그려가며 설명하고 사투리를 쓰면서도 서울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말끝을 “…….”라고 맺는다. 청중들은 임공선 씨가 구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구연 도중에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이나 지명을 서로 보충 설명해 주기도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염성리 구연자 4】

염치읍 염성리, 강일남(姜日男), 남, 73

1993. 1. 19., 류지원 조사.

마른 체격으로 반백의 머리를 앞으로 가르마를 탄 모습이 웬지 시골 농부 인상은 아니었다.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젊은 시절엔 중동에 노동자로 갔다왔으며, 염성리에 거주한 지는 20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농사를 생업으로 한다고 한다. 가늘고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구연하였는데 먼저 구연한 구연자들이 역사적, 학문적인 근거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강일남 씨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들은 옛날 이야기나 민담을 구연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구연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강일남 씨의 이야기에 대해 좀 격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조사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일남 씨는 <박색이나 마느질에는 박사인 박어사 부인> 이야기와 <맹정승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등을 구연하고는 자기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다시 하던 놀이에만 몰두하였다.

【염성리 구연자 5】

염치읍 염성리, 구자현(具滋賢) 남, 66세

1993. 1. 19., 류지원 조사

깔끔한 외모가 신뢰감을 주는 인상으로 염성리에서는 7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다른 구연자들보다 노인회관에 좀 늦게 도착했으나, 조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먼저 구연자인 한주현 씨에게 자꾸 이야기를 재촉하기도 하였다. 구연을 하는 동안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리에 맞는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듯했으며, 구연하는 중간중간 유머를 쓰기도 했다. 구연자료로는 <너도밤나무 때문에 살아난 울곡> 이야기와 <오성을 골탕먹인 한음의 부인>이야기 등이 있다.

【염성리 구연자 6】

염치읍 염성리 노인회관, 맹우재 (盟瑠在) 남, 67세

1993. 1. 19., 류지원 조사

조사자들이 맹사성에 대해 물어보자, 맹정승이 바로 자신의 조상이라며 자신이 예전에 들은 얘기를 소개하겠다고 자청했다. 맹우재 씨는 맹사성의 18대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훌륭했던 조상에 비해 자신이 배움도 짧고 유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족보와 그 당시의 벼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맹우재 씨는 맹정승이 항상 타고 다녔던 검은 암소의 묘에 대해 간략하게 구연하였다.

4) 설화 자료

【염성리 설화 1】

염치읍 염성 1 리, 1993. 1. 18., 박은실, 유주연, 이미진 조사

한주현(남, 70)

염성 2, 앞·뒤

장병천의 부인이 개가하게 된 이야기, 신령의 도움을 얻은 이성계, 이성계의 등극시간에 맞추어 사이가 좋아진 형제 이야기, 이천원님과 어떤 부인의 지혜겨루기, 시골영감의 서울구경, 한시풀이(가동청정, 김삿갓), 오성대감의 첫날밤 이야기. 글로써 장래를 예견한 이야기, 김삿갓이 글로 혼난 이야기

그 일본 기생으루서, 강명화란 소적이 있었어. 있는데 여기 아마 나이들 자신 분들은 그 저다 알거여. 헌데 그 강명화라는 여자가 일본사람인데, 일류기생이라. 대구에 와 있었거든. 근데 대구에 장병천이라구 있어.(조사자: 예.) 지금 대구 원래 그 장씨들이 원래 대대루 만석꾼으로 있어. 그러나 뭐 그 집이 아니라구 허고 애길 해야 돼. 그 집이 장병천인데, 그 사람이 인제 장갈 들었어. 들었는데 아주 천하일색이라, 강명화가. 당체 그 여자를 떨어져서는 한 시도 살지 못하졌어. 그러나 부모는 절대 반대니까 데리고서 어 온양온천 신정관을 왔더라 이거여. 6:25 사변 나기 전, 신정관이라 (청중: 신정관이 지금은 온양 관광 호텔이지. 옛날이는 왜정 때에는 신정관이라구 했어.) 6:25 사변 나기 전에는 신정관이라구 했는데 거기

와서 자꾸, 둘이 자살을 해 버렸어. 그러해 가지구 부모는 반대하고 저희는 그렇구 하니까, 장병천이 하고 둘이 거기서 자살을 했어. 그래구 나니까 그 장병천이 친구들이 말여. 참 돈 두 많구 그런 집인데 자살을 했단 말씀이지. 그래서 『강명화전』이라고 소설을 지어냈대 이거여. 소설책을 요만큼크하게 소설책을 지었어. 그래 장병천이 아버지가 그 소설책을 없앨라구 말여, 무한한 돈을 다 쳐들었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본처란 여자가 말여, 가만히 생각하니까 젊은 청춘에 자기 남편이 자살을 했겠다. 하룻밤이는 시아부지 자는 방 들어 갔단 말여. 들어가니까, 이 시아부지 되는 사람이 망했구나, 쇠대¹⁾를 줬다 이거여. 그래서 이 여자가 금고를 열고서 돈을 자기 힘껏 싼 거여, 재물을. 걸직허니 보따리를 싸가지구서 서울을 가는 길인데, 김천을 딱 와. 김천을 딱 당도했는데 경상북도 정선인가 있어. 경상도 쪽 들어가면. 거기에 배떼기나 하고 하는 그니까 절구지, 배떼기.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한날은 “아부지,” “왜 그래?” “...경성 구경을 나 했는데 저도 옷도 한 벌 해 입고 경성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 살림도 괜찮고 하니까 양복을 해 입구선 서울을 인저 가는데, 김천을 딱 와서 기차를 탄다 이 말이여. 기차를 딱 올라가 보니까 손님이 앉았는데 다소하니 옷을 입고 앉았는데, 쉽게 말하면 도제라고 할 수 있겠지. 큰애기가 혼자 앉았거든. 그래 그 옆에가 딱 앉았어. 그래 자리가 읊으니까 참 빈자리에 가 앉을 수밖에. 앉어 갔어, 서울을. 서울을 가니까, 아 선생님 같이 즐... (녹음불량) 그래 그 이튿날 그 정선 있는 그 처녀는 경성구경을 갔으니까. 아 이게 계속 따라나선단 말여. “나하구 구경을 같이 댕깁시다.” 말여. 그래서 그 땀 수두 읊구 말여. 그 같이 댕긴다구. 그래서 이것을 한 나흘 동안을 같이 구경하고 잠잘 땐 각기 여관에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그랬드란 이거여. 그런데 정선이란 젊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비록 옷은 남루하지만은 과연 천하일색이여. 한 나흘 동안 정이 들었던 말여. 그 어떻게 잘 생겼느냐, 땀 수가 읊어. 그래 나흘 동안 구경다 하구선 “나 이제 집으루 가야겠다.”구. “아, 나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따라 오는데, 이 여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천한 몸이지만은 소첩이 가서 이 몸을 선생님한테 땀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녹음 불량) 집에 들어갔어. 그래 자기 부인한테 그날 저녁 얘길 한거라. 사실 고대루 말했어. “내가 저기 이만저만해서 나흘 동안 같이 구경을 했는데, 과연 참 천하일색이여. 내 어쩐지 마음이 끌려서 그 여자를 떠구선 못 살겠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 허락만 있으면 당연히 하고, 염려마시고 부모님 승락만 받으세요.” 근데 참 부모님한테 그런 얘길 하니까, 뭐 택두 없어유. “야 이놈아. 당체 외동아들로서 야 이놈아 소첩을 끼다니, 어디 가한 말이냐.”구. “만약 그렇기 되면 너 하구 나하구 부자간인데 아주 분연이 될꺼다.” 딱 부러지게 얘기혀. 자, 부모영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관비를 몇 일간 갖다 줘야돼. 여관비를 가지구 가는데, 이 여자두 가만히 여관에서 얼마를 목으면서 김씨가 여관비 갖다 주는 걸루 지내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의 기색이 틀려. 근디 한번은 여기서 “김선생님, 어째서 영 안색좋지 못하우.” 말이지. “내가 얘길 하는 게 부모님이 어들 합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말여. “다른 게 아니라 내 처는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하니, “예, 그렇다면 그 좋습니다. 그럼 김선생님이 맘에 드는 사람을 하나 천거해 주시오.” 그랴. 그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 참 이 사람이 암만 생각해 봐두 자기 마음은 참 순한지라 마땅한 사람이 읊어. “읊다. 내가 한 십년 데리구 있던 일꾼이 가장 마음씨가 좋다.” 이거여. 그니까 “사실 그 저 우리집에 한 십년 데리구 있었는데, 그 일꾼하고 살어두 괜찮소?” “아, 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해 주슈.” 그래 참 그날 들어가면서 자기 일꾼더러 얘길했어. “당신 참 뭐 아주 천하일색이다. 한테 그래 자네한테 충신을 해 줄 테니 가게나.” 아 늙은 총각이 한 십년 남의 집살이 하는데, 여간

반갑겠어? 그래 참 그 이튿날 데리구 갔겠다. 외관은 뭐 번듯하게 생겼을 테지.(청중: 웃음) “그래 바로 이분이요.” “아 좋다.” 그렇다 이저 중신을 맺어 준거라.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하구 부부가 됐으니까 여관에서 묵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십년 남의 집 살았다면 쌀을 좀 받아논 게 사전에 받아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여. “받아논 게 있다.” “그러면 내일 쌀 한가마 줌 갖다 주소. 그 하다못해 떡장사라도 해가지구서 내가 생활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여관비도 없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일꾼들 방에 동네 사람이 죽 모인, 지금이나 예나 말여. 그래 또 이제 그 일꾼이 얘길 했겠다. 내가 사실 이만저만 했는데 그 여자로서 살기로 했는데 이 여자는 떡장사를 한다고 쌀 한 가마를 달란 단 말이여.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저 주지 말라구, 어디 이제 갖다 주면은 당장 떠인다.²⁾ 언제 봤다구 뭘 믿구서 이 쌀 한가마니를 주느냐 말여. 그래두 이 사람이 마음이 쓰인다 이거여. 한 가마를 준다 이거여. 그래 쌀을 한 가말 줬드니 한 사흘 지난 다음에 가니께, “아구 이걸 안해보던 떡장사 하다보니 후딱 날려 버렸슈, 이거. 그래 요번이 한 두어 가마니 주소.” 말여. 그래 참 또 설쳤지, 이 동네 여러 사람이 모였는디. 아, 이 사람 안된다구. 쌀 한 가마를 떠이고 두가마. 또 두 가말 줘어. 그러드니 한 두서너번 해줬던 모양이라. 그래 당체 그 여자는 일부러 쌀을 팔아서 다 치운거라. 그래 인제 하루 아침에 또 가니께 그 여자 하는 얘기가 “아, 머슴도 한 십년 오래 살았고 하니 이 근방에 말여, 이 근방에 한 천석지기 한 하구서 땅이 있습니까?” 밀천두 없는디 말여. 이거. 여자로서 이거 보따리 하나 떡 갖다논 거 밖에 없는데, 천석지기 땅하구 가당하냐구 물으니 이께, 고지들을 턱이 없잖아. “아, 여보 그 무슨 소리여. 그거.” 그 천석지기 땅 열마지기구 한마지기구 간에 ... (녹음불량) 그래 이 사람이 마침 그 건너편에 역시 김씨네 천석군이라. 이 사람은 서울, 경성으로 갈라구 팔라구 하니 원체 돈이 커서 작자가 없더라 이거여.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구서 “자, 어르신네. 그럼 얼마인지 적어 주세요.” 거참 적어 줬어요. 자기 부인 갖다 줘어. 집은 몇칸에, 기와집이 얼마 (녹음불량) 그래 사실 그래서 그 천석지기 샀다 이거여. 샀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됐느냐, 김씨란 사람. 서울 같이 있던 사람. 병이 나서 죽었던 말이 있어. 죽었다 하면 너무 박절하고 고민을 하다 인저 살았다. 강명선이 얘기여.

아태조³⁾. 임금. 아태조, 이성계. 아태조 아버지가 자자 춘자 자춘이여, 자춘. 형이 있었는데 원계라. 그 우리나라 태조 임금이 성계고. 이조 오백 년에, 말하자면 국부, 아태종이 국부 아녀. 그러구 큰 부인이 한씨라. 한씨루 국부루 됐고, 둘째는 강씨라. (청중 몇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상비대가 인제 고구려에서 고려 여기 그 삼장사거든, 삼부대가 삼장사라. 그런데 이 한양을 쳐야할텐데 말여. 그런데 이성계 국부 그 아버지가 자춘이 그분이 가만히 볼 때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이성계 요놈이 낫다 이거여. “그래 니가 가쳐.” 그래 참 인제 칠라구 인제 나오는데 그니까 동두철이 됐던 모양이지. 무학재를 넘어. 어떤 허연 노인이 백마를 가지구 밭을 갈면서 “이라 찌자, 미련한 이성계가 친단 말여. 어찌 동을 칠라 하느냐, 남북을 쳐야지. 미련한 이성계 같으니라구.” 하구는 이성계가 깜짝 놀랐어. 그래 다시 보니까 옳어. 알구 보니까 산신령이라. 그래 참 사실은 예, 북을 칠라구 했었는데, 분명히 가르켜 준 거, 야 미련한 소만도 못한 이성계야 말여. 어찌 북문을 치난 말여. 남문을 쳐야지말여. 그래 깨닫구서 다시 남문을 치기루 결심했단 말여. 그래 남문을 도끼루써 때려부숴줬단 말여, 남문을. 그래 되지 않았어?

어느 마을에 말여. 놀부 흥부 비슷한 겨,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 이게. 아태조가 이렇게 치구 딱 됐는데, 어느 마을에 참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잘 살구 동생은 못 살었어. 그 당체 어떻게 쌀 한가마 안 받아. 아 그래 동생은 굶어 죽을 지경이라. 그래 ‘내 이느무거 자식다 굶어 죽이나 내 우리 형님 집에서 형님 재산쯤 뺏어오나 마찬가지다.’ 말여. 그래 예나 지금, 그때나, 예-, 그 장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한 날은 형이 소를 팔러 간단 말여. ‘올다.’ 아 그래 저기 소 팔러간 기회를 타가지구서 오는 목을 가 기다린다 말여. 근데 밤이 영되도 안 오네.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 요새 말루 말하믄은 열두 시가 가까이 됐든 모양이지. 그래 산고개 넘어 두툼두툼 내려가니까, 주막이 있어, 또. 그래 딱 형제가 마주뜨렸단 말여. 고계 딱 밤 자정이라. 자정 한 시까지 거기 자정이라. 자정인데 근데 우리 아태조 등국시간이 자정이라. 그래서 두 형제가 딱 만났는데, 형이 있다가 “동생, 얼마나 시장한가? 들어가세.” 바로 그 시간이 아태조 등국시간이 됐으니까 그리 됐었다 이거여. 인심이 천심이여. 사람의 마음이 천심이라구. 천심이 인심이라. 천심이 인심으로 변한다 이말이여. 근데 아태조 인제 선정하구 하니까 인제 천심으로써 인심이 싹 변했다 이거여. 그래 형이 딱, “야, 동생. 내가 죽일 놈일세. 내 조카놈들 다 굶어 죽게 내버려두고, 내 여태 쌀 한가마 안 줬으니 내가 죽일 놈일세. 이 소판 돈 이거 가지구 가서 보탬이 되라.” 그래 맘이 변했다 이말여. 아태조 등국시간이 자정인데, 자정에 등국하자 인심이 싹 천심이 변했다 이거여. 그래서 그 문자가 천심이 인심이요. 인심이 천심이요 하는 문자가 그때 나왔다 이거여.

여기 이천 원 혼난 얘기여, 이게. 여기 이천 원, 원. 이천이 낮에두 꼭 나오는 텐데, 어떤 여자가 하나 떡 미묘한 여자가 나온단 말여. 그래서 그만 이천 원이 경기도 이천 아냐? 이천 원이 좀 짓궂었던 모양이라. “아 부인, 누구의 소생 소생이옵니까?” 아 그러니까 “백갑니다.” 원이 물으니까, “성씨는 누구요?” 하니까 자기 성을 하여튼 뭐 거든. “백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천 원이 있다가 “아이구, 부인은 남편이 백이나 되니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던 말여. 그래 이 여자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닉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경기도 이천 원이요.” “하하, 그러니 좋겠습니다. 부인이 이천이나 되니, 좋겠습니다.” (칭중 웃음)

(테이프 교체) 강을 건너는데, 아 이 여자가 먼저 툽 튀어나가더니 대체 먼저 튀어나가지구. 한배를 탔으니까, 인제 먼저 나간 게 형이 아이난 말여, 분명히. (칭중 웃음) 한배를 탔으니까. 아 후딱 튀어나가니. 동생이 빨리 나오난 말여.

아, 두번 벌써 당했던 말여, 원이. 가만히 그 패썹하긴 한데 그 원체 머리가 모자르니까 할 수 읍잖아. 그래 참 그럭저럭 하다가선 날이 저물어 자는데, 안에 들어가자구 하니까 자는데, 자구 나니까 밖에서 싸움이 붙었어. 싸움을 한다 말여. 그래 아, 원님이 여기 와 계신디 말여. 잘 됐다구 말여. 그래 우리 이걸 갖다 원님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하자. 근데 무슨 일 인고 하니, 노를 한마리 잡아 가지구 왔는데 포수하고 게임자하고 둘이 싸운단 말여. 이건 우리 개가 잡은 거니까, 포수는 내가 총으루 쏜 놈이다 말이여. 그래서 둘이 왱자지껄 싸운다 말여. 그래다가 워디 원이 여기 산다니께, “원님 이걸 판단을 해주쇼.” 근데 참 여자가 가만 앉아서 듣구선 말여. 어떻게 하나 듣구 있지, 인제. 아 원이 갑자기 판단을 해주긴 해 줘야 하는데 어땡기 할 수가 있어야지. 어땡기 해버리냐 이말이여. 그 둘이 반 짝 갈르라고 해도 말이 안되고, 그래 찢찢 매거든. 이거 판단을 못해주니까 말여. 그래 안에서 나와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원님나라가 판단을 안 해주시니까 어찌냐.” 그래 이 여자가 있다 판단

딱 해주는 거라. 개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개가 잡은 거고, 포수는 가족을 쓰기 위해서 잡은 거다 말여. 그러니 뱃겨라 이거여. 가족을 뱃겨서 고기는 다 개를 줘라. 개를 주고 껌데기는 포수 가져가란 말여. 이게 정당한 판단 아녀, 이게. (청중 웃음) 거참, 머리 짜내는 게 사실은 여자가 한 수 위거든. 그러니 그 원이 “아, 과연 참 머리 좋소.” 그 다음에 친절하게 지냈다.

요새 얘기라. 요 얼마 얼마 안된 애긴데 저 언제 그 서산 당진, 서산에 해미에 비닷가에 가면, 근데 거기 한곳에 좀 한 뱃떼기나 하고 줄부로 사는 집안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여, 자기 아버지더러 “아버지, 다른 사람은 서울구경을 다 하는데 아버지만 서울구경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야, 뭐 늙은 사람이 뭐 서울구경 뭐 가냐?” “아뇨, 서울 좀 다녀오세요.” 다른 사람들 다 서울구경 다 가구하는데 뱃떼기나 하구 하는데 말여. 돈이 읊어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인제 아들이 옷을 한 벌 참 잘 해가지구서 돈을 한 쉽게 말하자면 몇 십만원, “아버지, 서울 좀 갔다 오쇼.” “그래.” 그래 딱하니 기차를 타구 서울을 갔는데 어느 참 여관집에 썩 들어갔다 이 말여. 거 날이 저물는데, 아 이 잘라구 보니 어찌 안방에서 어찌 대곡대곡 싸운단 말여, 그 주인하고. 그 이 사람이 가가지구 영감이 내다보니, 어찌 아주 햇볕은 거지하고 여관 주인하고 싸운다 이 말여. 이틀 밤두 아니구 사흘 밤, 나흘 밤 돈두 안 내구 하숙비두 안 내구 잘라구 하느냐고. 당장 나가라구 막 내쫓거든. 그래 이 영감이 참 정이 많은지라, “주인장 여보쇼.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하숙비를 낼 테니 내 방으로 좀 보내주소.” 이렇게. 그러니 그 여관주인이 좀 좋아, 그거? 아, 옷도 잘 입었고 숙박료를 준다고 하니까 말여. 그래 이방 딱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니까 아무 기대조차 아무도 없고, 이리저리 댈 데도 없는 거지 생활하는 노인이라. 그래 여기서 잤겠다. 밤이 자는데, 아 서울서 온 영감 같이 옷을 딱 걸어놓고 자는데, 그지 영감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이럴 기회가 없어. 그러니 자기 거지 옷을 벗어 놓고 그 좋은 옷을 싹 갈아입고 줄행랑을 달았다 말여. 그래 또 내빼는데 막 어디쯤 갔든지 모르지. 허나 그래 참 가면서 보니 돈두 잔뜩 하구 말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 어찌키 가다보니께 날이 새기 전인지 어쩐지 말여. 아, 뒤에서 차 오다 막 싹 갈아 버렸다 말여. 그래 뭐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갈았던 모냥이지. 그래 당장 이 경찰에 가서 딱 조살 해보니까 증거는 있다 말여. 그 해미 어디 아무개. 그래 당장 연락을 했단 말여. 아버지 여기 차사고 나서 죽었으니 데려가라구. 그래 아들이 올라와서 보니께 뭐 이거 틀림없지, 뭘. 얼굴은 비록 갈아서 알아보질 못하지만 자, 증명두 똑같지 옷두 며칠 전에 고 전날 해 입은 거 똑같지. 그러니 틀림없는 거 아녀? 그래 가지구 장사를 지냈다 이거여. 그 신지두 잡어논 데 있어. 그 뭐 살림두 괜찮구 하니까 버젓이 모셨다 이거여. 소두 몇 마리 잡구 말여. 장사를 지냈는데, 그 서울서 이 영감 어떻게 됐는고 하니 “여보쇼, 주인장.” 그 주인한테 말여. “내 사실 그게 아뇨. 그 정상 이 불쌍해서 이 영감을 같이 자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더니 내 옷을 바꿔 입고 달아났소.” 말여. 여관주인이 “영감,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 영감하고 짜고 이 따위 소리냐.” 말여. “아, 그 사실 그게 아니고 내 여비만 조금 주쇼. 그럼 내 어딜 가서 가져올 테니.” 그뻘 전화도 없었던 모양이지. “내 가져올 테니 꼭 해주소.” “네 이 나쁜 놈!”이라구 말여. “그지 영감하구 짜구서 수작을 하구서 무슨 소리냐!”구. 이력저력 삼일이 딱 됐거든. 아 굶어 죽지 않도록 밥 한 그릇씩 딱 주구서, 이느무게 가만 그 여관주인이 생각하니까 뒤 봤던들 그 뭐 하냐 말여. 하루 밥 한 그릇 또 없어졌지.(청중 웃음) 이 그 사흘만에 “그럼 영감 틀림없이

갔다가 여비 줄테요? 보내 줄테요?” “아, 보내다 말다요.” 그래 여빌 언어가지구 가지구 들 어갔드라 이거여. 자기집을 찾아가는데, 원래 지금두 그렇지만 차가 읍었던 모양이여. 걸어 가다보니 날이 저물었다 이거여. 인저 가을철이 된 모양이지. 날가릴 쪽 집안에 쌓아놔는데, 대문을 탁 닫구선 인적이 고요하지. 그래서 아무것아,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러 니 뭐 삼일동안 초상지내느라고 정신없이 밤샘을 하며 골아떨어졌는데, 그 할멈은 자기 영 감을 장사를 지내고 오니, 그래서 아들보단 부부간의 정이 두텁더라 그거여. 그 영감이, 영 감이 죽어 장사를 지낸 그날 밤에 잠이 오난 말여. 그래 뜬 눈으로 밤을 샌는데, 아 새벽녘 이 딱 됐는데 어쩐 목소리, 틀림없는 자기 영감 목소리라. 아 그러니 문 열어라 해가지구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 할멈이 잠을 안 자구서 뜬눈 새구 있다가 처음엔 참 놀라 감히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두세 번, 열 마디 스무 마디 들어도 자기 영감 목소리여. 그래 쫓아 나갔다. 문을 열어보니 그니까 이젠 엇그제 이미 죽은 걸루 보냈더니 딱하니, 그지로 딱하 니 들어왔거든. 저게 어똥기 된 일이냐고 말여. 근데 들어가서 아들놈을 깨워 놓고보니, “아 대관절 아버지 어똥기 된 일이오?” 그래 사실대루 얘길 쪽 했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모 양이 됐는데...” 그래 그 이튿날 당장 또 돼지 한 마리 잡고 인근 동네 뭐 한 분들 다 불렀 어. 불러가지구 “이걸 판단을 해주쇼. 이걸 어똥기 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말여, 분해가지 구 “아, 이놈의 거지 영감 당장 파 내던진다.”구 말여. 저희 아버지 시누지 잡어 논데 거기 다 딱하니 묘를 갖다 잘 쓰구 해가지구 그 아들네 여간 분해여, 그거? 이느무 영감, 당장 파내 던진다구 말여. 아니 근데 인근노인들이 말여. 이 참 속담에 말여. 남의 복은 꾸려도 못한다고. 이 거지들은 이 영감의 터라 이거여. 응? “그래는 이대루 두고 당신네는 재산이 있으니까 탄 데 좋은데 얼마든지 사서 쓸수 있소. 허니 이는 이대루 두고 다른데 쓰라.” 이 렇기 해서 타협이 됐다 이거여.

그리구 그리 모양이 말여. 가등청장이 인제 조선을 가지구 나왔는데 애보짓꾼도 왔었다 이 말여. 왔는데, 그 실패했거든? 실패하구서 가는데 고향으루 들어 가는데 그래 이 글을 한 수를 넘겼다 이 말이여. 그때 인제 온 편을 지었던 모양이죠? (한자로 쓰신 것을 짚어 가지 며)

화개화락타향유⁴⁾요.

꽃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니 타향의 눈물이요. 열 겨자 핀다는 걸 열린다구 하지. 인제 화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하니께 타향의 눈물이라. 한국 땅에 와서 이, 타향 아녀? 타 향의 눈물이라.

운거운래고향사⁵⁾라.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니 말여. 고향사라. 고향생각이 나더라.

귀가에 약문군초색⁶⁾이면,

집에 돌아가서 만약 군에 소식을 물으면 말여. 수백만 데리구 왔는데, 자기가 고향에 돌아 가서 나 어떡하구 왔느냐 하구 물으면 말여. 대답 어떻게 할거냐 말야. 그래서 귀가에 약문 군초색이여. 집에 돌아가 만약 군소식을 물으면 말여.

조조지참자하⁷⁾오.

이르고 늦고 아 이거 또 빠졌네. 아이구. 근근지지. 이르고 늦고 느리고 곧 어똥기 대답하

리. 자기가 패전하고 자기 고생 딱 하면 말여. 다 죽었으니 말여. 어똥기 대답하느냐 말여. 그러니,

조조지지답례하⁸⁾오.

자 일찍 오구 늦게 오겠다 할 수 읍잖아 이거. 이 참 비록 일본사람의 글이니까 우리 문헌에 못 올랐지, 만약 이런 글을 우리 조선 사람이 썼다면 있었다면 올라야 한다. 참 좋은 글이여.

포은이 말여, 정포은. (청중: 정몽주.) 정몽주 아녀? (조사자: 예.) 경기도에 가면 선죽교라는 데가 있어. 선죽교 다리가 있어. 선죽교에서 처참당했어. 근데 그 후로 말여, 첩패⁹⁾ 맞아 죽은 후로 정월보름 날이면 하루 동안 다리 밑에 꼭 핏물이 흘러. 그 선죽교 어데 저기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다리 부근 여기 부근서 핏물이 생겨서 그 하루 동안만 흘러. 막을 수가 없어. 그래 떡하니 김삿갓이 그 앞을 지나다가 가만 보니 정몽주 피 같더라. 그래 인제 뭐 그런 정설이 되니까 핏물이 정월 보름날 하루 동안 흐른다. 선죽교로 흐른다 말여. 요새 김삿갓이 글이여. 선죽교 머리다가, 머리다가 그 비를 세워주고. 그런데 김삿갓이 떡 지나다 보니께 이 떡하니 정몽주 비를 세워놨거든.

선죽교두혈¹⁰⁾은

선죽교 머리에 피는, 선죽교 머리에 피는,

인비아불비¹¹⁾라.

남은 슬퍼해도 나는 슬프지 않더라 말여. 인비아불비라. 남은 슬퍼해도 나는 슬프지 않더라 말여.

국파국망후¹²⁾에

나라 입파하고 나라 망한 후에

불사갱하후¹³⁾야.

당신이 안 죽구서 뭘 할거냐 말여. 요게 김삿갓 글이라. 정포은 선생 요기서 첩퇴 맞아 죽어 그 자리에 피가 내리니까. 그 다음에 싹 읍어졌어. 피 흐르는 게 싹 읍어졌어.

오성 대감이 말여, 장가를 떡 갔는데 (조사자: 네.) 첫날 저녁에 말이여, 그 부인보고 “부인 삼중지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 압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럼 어디 불러 보시오.” 군위신종, 군위신종, 부위부종, 부위자종. 이 뜻은 뭐냐. 군위신종, 임금은 신하를 믿고, 부위부종, 아니 부위자종, 아버이는 아들을 따르고, 부위부종, 부인은 자기 남편을 따른다 이거여. 그래 끝에 한가지를 얘기 안 했다 이거여. 그러니까 오성이 굉장히 오해를 샀지. “아 여보시오 그런데 부인, 아 (녹음불량) 해가지고 삼중지도를 모르다니 어째그리 교양이 박합니다.” 그러다 그거여. 굉장히 오해를 샀단 말이여. 그러니 그 부인 뜻은 말이여, 부위부종 하는 뜻은 아들이 없으며는 아, 저기 자기 남편이 없으며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여. 부위자종. 그러니 말하자며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라. 그러니 사람이 참 그 첫날 저녁에 그런 방정맞은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부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오성은 이거를 오해를 샀다 이 얘기야. 그러니 하루를 지낸 다음에 부인이 말이야, 오성이 잔뜩 화가 나가지구 말이야, “보시오 부인, 보아하니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여보세요, 그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삼중지도도 모르다니

어째 그렇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참 여성들한테 교육을 다 가르치고 그랬어. “그래, 부위자종을 얘기를 해야 옳습니까?” 그렇게 해놓구서 가만히 생각하니 부인이 자기보담 지혜가 나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가. (청중: 음~.) 그래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기 부인을 굉장히 참 인정했어.

어느 시골에서 이만한 조그만한 방에다가, 그래 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맨날 이놈들이 글 배우러 우리 집엘 와야 되니까, 그러니가 선생 집이야 그게. 애들 둘을 가르치는데, 밤만 되면 밤마다 글공부를 오는 거라. 선생집에 와. 그러니 선생이 가만히 생각하니, 갈 만할 때 되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애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딱 이거 칸막이 하나 백에 있는데 말이야. 그래 차마 이려고 있는데 건넌방에 있는데 갈 수도 없구. 그리고 하니까 하루 저녁엔, “야, 이놈들아 그만하고 자자.” 그러니까, “예.” 그러구서는 선생은 이놈들이 잠이 폭 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밤 늦어서 슬그머니 할멈방으루 가는 거라 이제. 애들 자는디 천상 영금영금 길 수밖에, 기어 갈 수밖에. 그래서 바로 이 글이라 이제. 추호도빙¹⁴⁾이라, 가을 밤이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 말이야. 호랭이가 얼음판을 건널 때 슬슬 그냥 기어가야지 도리 없다 이거야. 허허. (조사자: 네.) 한 놈이 그냥 자는 줄 알았더니 딱 허니 “추호도빙이로고.” 그랬더라니께. 선생이 기다 보니까 가슴이 아주 뜨끔해여. ‘어이쿠 들켰구나.’ 그러더니 “야 임마 너두 일어나 한 수 불려봐라.” 그래거든. 지 친구가 그러니까 “청매포추.”¹⁵⁾ 푸른 매가 껴안은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 아주 간단하고도 명풀이거든, 야 너도 한 수 해봐라. “갈마음천”¹⁶⁾ 명마가 샘을 마신다. 일단 글로써 신기 하잖아 이제. 그래 하룻밤 자구서 그 이튿날 아침을 먹으러갔다 이 말이야. “야 이놈들, 어제 저녁에 내가 지방으로 건너갈 때, 너 뭐라고 했는지 얘길 해봐라.” “저는 한 얘기 없습니다.” “야 이놈, 너 분명히 한 얘기 있다. 거 추호도빙 이라고 한 놈 누구냐?” 그러니 꼼짝을 못 하잖아. “예, 제가 추호도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청매포추이라고 한 놈이 누구냐? 푸른 매를 껴안은 격이다 한 놈이 누구냐? 갈마음천이라고 한 놈이 누구냐?” “예, 저 올시다.” “그래, 책 싸. 책 다 싸. 이제 너희 짓은 나한테 더 배울 게 없어. 내 상식 가지고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러니 책을 싸라.” 어느 명령이라고 감히. 그러니 책을 썼어요. “잠관 앉아라. 추호도빙이요, 가을밤이 얼음을 건너는 격이라 하는 것은, 너는 정승 한 자리 해 먹어. 너 이만한 포부 가지고 해먹고, 고 다음에 청매포추이라 한 놈은(녹음불량) 할 수 있어. 너 포부 하. 갈마음천라 하는 것은 어디가 훈장노릇은 할 만해여.” 그 실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실지로 애들이 커서 됐어.

천하무적 김삿갓을 아는가? (조사자: 네.) 김삿갓이 혼난 얘기라. 김삿갓이 천하무적인데, 그냥 입만 벌리면 글이라. 김삿갓이 말이야.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 단, 나라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삿갓을 쓰고 돌아 댕긴다 말이야. 그래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아 댕기는데, 어찌다 저기 정자란 게 하나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는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 한 복판에 꼭 바위가 소마냥 비슷하게 누웠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너댓 살 먹은 꼬마 애들이 거기다 글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 김삿갓이, “이놈들 너 글 쓸 줄 아느냐?” 이 말이야. “그래 한번 해 보지.” 딱허니 반말루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글을 불렀더니, 그 뜻을 해석해 보라.” 이 말이야. “해봐.” “그러면 글제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저 물가에서 소같이 바위가 비스듬하게 누웠는데, 저걸 뭘 바위라 부르느냐?” “아, 이 동네선 저

바위를 소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랬지. 그러면 저 바위를 글체를 주고서, 즉 소바위 글체를 주고서, 그래 김삿갓이가 “하위우명¹⁷⁾이라.” 어째서 소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위우명이런가. “전당대유공¹⁸⁾이라.” 전당이란 건 장사이름이야. 잘 모르겠지만 전당이진시황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전당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중소에다가 양 뿔에 칼을 붙들어 매고, 꼬리에다가 솜방망이를 붙들어 매고 불을 질렀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 소가 뜨거워서 전쟁터를 휩쓸었대. 그래 승전을 했어. 그래 소에다 매서 승리를 한 장사가 전당이란 장사가 승리를 했단 말이야. 소를 칼을 달고, 꼬리에다 솜방망이를 매달고 불을 붙여 내쫓아, 그래서 전당이 대유공이라. 전당이 큰 공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김삿갓이가, “참 이게 내가 각처를 돌아 댕겨두 이렇게 혼나 본 적이 없는데 요것들한테 혼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김삿갓이 말이야. 지금우열하여라. 지금까지 소 꼬리가 뜨거워서 꼬랑지가 뜨거워서 물가운데에 드러눕다 이 말이야. 참 그 기묘한 그런 얘기여 그. 그랬더니 이때 나 인젠 나 어디 가도 김삿갓은 인젠 이름뿐이겠구나. 거 도망갔단 얘기여.

【염성리 설화 2】

염인면 염성리 노인회관, 1992. 12., 류지원, 박은실, 유주연 조사

박만교(남, 64)

염치면, 염성리 명칭의 내력

염성 2 뒤

여기를 맡여 아산군 염치면이라구 하쥬. 내 나이가 몇 살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산이라구, 여기 여기가. 저 아산만 (청중: 아산만.) 아산만 가기 전에 고개가 있어요. 고개가 있는데 거기 가면서 아금야자, 아금야자처럼 바위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녹음불량) 라고두 하구 야금야자라고두 하는데, 지금 아산이라고 하는 데가 야금야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아산이라고 해서 그 원래가 아산군이 이 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로 말하자면 아산의 고을이고. 고기가 붙어서 저기라고요. 온양에선 (녹음불량) 나중에 나왔지. 그래서 아산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제 아산군이란 게 나온 거구. 거 염치 염치라고 하는 것은 이 염자는 소금 염(鹽)자라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배가 닿았다는 얘기로. 아산만 물이. (청중: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께 물이, 배도 오구. 그래서 소금 염자하구 고개 치(峙)자는 인제 여기 고개가 있거든. 여기 보면 고개가 있으니께 그렇게 내가 알어유. (청중: 소금을 실구 고개를 올라간다 해서 그래서 염치라구.) 염치라구 이렇게 이렇게 아는 걸루 알고, 저편 쪽으로 저편 쪽으로 이 염치면이 길다랗거든요. 동서루 길다래유, 길다랜데 저편 쪽을 삼서라고 이렇게 되있었구, 그게 합쳐서 우리가 염치면을 염치면이 된 거유. 그래구 우리 동네는 요렇기 뵈는디, 요 산이 하나 있는디 봉우리가 있는디 이게 별처럼 생겼다구해서 인제 이게 성산(星山) (청중: 성산이라구.) 옛날에 지도 보니까 성산이라구 써 있더라구유. 근데 이제 여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처럼 생겼다구, 그리구 봉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두 있구 이렇게 뵈기 때문에 아마 성산이라구 그랬나봐유. 이제 우리 동네 이름은 아마 그렇게 나온 건가 봐유. 옛날에 어른들은 더 잘 아실 테지만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염성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정 때 한 동명이 염성리라고유. 그래서 이 배가 여기 갖다 놔서 염자, 이 소재지잖아유, 염치읍에. 그래서 염자 따구 인제 여 별같이 생긴 부락이라고 해서 염성리라고 이렇게 지어 진걸 알구 있다구유.

【염성리 설화 3】

염치읍 염성 1 리, 1993. 1. 18., 박은실, 유주연, 이미진 조사

임공선(任公先, 75)

일제시대에 사신으로 가서 활약한 사명당. 토정과 등짐장수의 예견. 토정이 아전들에게 죽 게 된 이야기. 사명당과 서산대사 이야기, 술 얻어먹고 콩씨 얻어준 김삿갓, 어린아이보다 생각이 짧은 박어사, 맹사성이 맹구불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야기

염성 2, 앞

이것두 서산대사의 그 기묘한 선택이여. 이 여러 사람을 혼동했던지, 이렇게 기묘한 저기가 있다는 거지. 고기까장만 얘기하고 이 낭반이 그 공을 이룬 것은 그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가지구, 이 그 참 어 압제를 받구 누구든 그 우리나라 많이 이렇기 참, 뺏어가구 그랬 었는디 일본에 사신 갈 사램이 없어서 우리 그 양반이 사신으루 들어가셨는디 일본에, 그 뭐 지묘한 얘길 하자면 그 뭐 다할 순 없고,.. (청중: 잡담) 저 그때 일본에 이 한국에 나와 서 전장을 일으킨 사람이 일본말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구, 우리 한국말루는 풍신수 길이라는 사람이여. 고 우리 한국을 집어먹을라구 했던 어 (청중: 총사령관이시.) 총사령관 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죽고 고 후에는 누가 있었던고 하니 일본말루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구, 도꾸가와라는 사람이 있었어. 도꾸가와. 도꾸가와는 독천이, 한국말루는 독천이여. 그 사램이 이 풍신수길이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이 인저 말하자면 사령관이 된 심이지. 그 에 일 본에 총 임금은 있지만 그 사람이 총 나라 일을 좌우하는 사람이여. 그 사람하구 상대가 되 는데, 그저 사명당을 죽일라고 아는 것이 많구 당채 어똥기 당할 수가 없어. 그 무슨 얘긴 고 하니, 에 뭐는 상대해두 도대체 그 사명당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진 무쇠집을 이 려기 짓구서, 이걸 거기다 가두구, 대쪽을 달구서 불을 막 집이는 거여. 그 일본에 석탄 많 잤어. 그래서 그 무쇠불이 그냥 녹어서 흠뻑 정도로 막 때는 겨. 죽기를 기대하구서. 그 이 튄날 식전이 꺼져가져버리구 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사명당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이렇게 달렸어. 근디 방에 벽에 성애가 덕적덕적하니 말여. 이 양반이 “이 이놈들아, 덩다드니 왜 이렇기 춥느냐!” 말여. 빨리 불 때라 이거여. 으? (청중 웃음) 죽일 수가 없잖어. 죽일래야 죽일 수두 없지. 그래 항복을 받고, “그 조공을 뭘루 받치오리까?” 이제, “나는 조공 아무 것두 싫구, 내가 꼭 하라는 걸 해라. 난 비단두 싫구 은금보화두 싫어. 내가 달라는 걸 꼭 주겠느냐?” 독천이 보구 얘길 했어. “주겠습니다.” “틀림없지?” “예, 틀림없습니다.” 또 “틀 림없지?” “틀림없습니다.”이렇기 다짐을 받았어. “좋아, 나는 다 싫고, 우리 교포들 너희가 끌고 온 교포를 모두 다 소환해서 우리 한국으루 보내줄 것, 둘째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그 모가지를 찢러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여. 나는 아주 그거에 더 좋은 조공은 없어. 그거 찢러올 것.” 그러니까 덕천이란 놈이 뭐라고 하니, “제가 저는 지가 죽어도 저는 못하겠읍니다. 지 모가지 잘려 가십시오.” 이라고 모가지 잘려 내밀어. 그 낭반한테 달리 변동이 없어. 잘못하믄은, 진언 한 마디믄은 죽어. 그러니 내 모가지 잘려 가라는 겨. 근디 그 풍신

수길이는 대, 일본의 대인인데, (녹음불량) 덕천이 못한다 이거여. 그러니 내 모가지 잘라 가십쇼 하구 내 놓는 거. “너 이놈, 내가 하라는 대로 너 조공 바치랜대루 너 받친다구 했겠지? 그래구선 내가 다짐을 받았겠지? 그런데 못 가져와, 이놈!” 호령을 하니께 이게 “제 모가지 잘라 가십쇼.” 아 도리가 없어. “그럼 좋다. 고 다음으루 틀림없이 내가 하란 대루 하겠지?” “예. 그저 풍신수길 모가지만 안 잘라 오라구 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믄 풍신수길이, 아까마냥 그짓말을 하면 니 모가지 잘라갈 거, 이번엔. 고 다음으루는 아무 것두 없구, 뭐 다 싫어. 일년에 조공을 받치되, 내가 하란 대루 너 꼭 한다구 그랬겠지?” “예, 하겠습니다.” “인피 삼백장. 1년에 바칠 조공이 인피 삼백 장. 그건 무얼 얘기하느냐? 조건이 있어. 인피 삼백 장은 15세까장 된 여, 시집 안간 색시의 인피여. 산 사람의 인피 삼백 장. 남자 15살 먹은 미혼들이지, 불알 서말. 까서 서말 까서 말려가지고 일년에 서말, 요거 받치겠느냐?” 할 수 없이 받친다구 그랬어. 그래 이 사람들이 에 인저 사명당은 들어오시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바치는데, 이 낭반이 진언 한 마디면은 비가 날마두 와. 그래서 일본놈들 그 땅에 비가 노다지 오구. 이러니까 썩구 삼백 장이 아니라 삼천 장을 뺏기는지 삼십만 장을 뺏기는지, 부지기수여. 이렇기 아까 얘기한 대루 그 남자 불알두 역시 그렇구. 썩구 그래서 사람이 멸종되다시피해서, 못하셨습니다 해가지구 우리나라에서 번을 서 주겠다 그래서 그걸루 용인이 됐다 이런 얘기고, 또 그런 얘기로는 거, 사명당께서 하두 공을 많이 이루시고 그래서 나라에서 그게 실지 저기는 읊어요. 그런 얘기는 거, 그때 그 시절에 그 임금께서 불려서 벼실을, 뭐 정승 벼실을 내렸는데, “사흘 정도밖에 안 하겠다.” 그러시구서 “나는 으, 직장도 싫고 그저 소원이, 소원이 나는 중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나랏님께서 “그러믄 우리나라에 이렇기 해서 그 정치를 하자는디, (녹음불량) 이유가 있냐?” 그럴리 읊다 그거여. “다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도로 국사에 대해서는 돕겠습니다.” 하고서 가시는데, 대나무 지팡이 꺾은 것이, 꺾구서 인제 가셨는데 대나무 지팡이 꺾은 것이 잎이 피믄은 내가 살고, 살은 걸로 알고 잎이 안 피믄은 죽은 걸로 아슈. 이락하구서 가셨다는데, 그 후론 내가 무슨 소린가 그때 우리 저기 그 그거 그 낭반 절 얘기 그거 표충사, 거길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 내 거기 갔어. 갔었는데, 스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믄 이렇기 (녹음불량) “이 무슨 나라에서 그 구고한 일이 있으면 이 비에서 땀이 흘립니다.” 이런 얘길 하거든. “그 땀이 흐르면 얼마나 흘릅니까?” 그 중네 말로는 서말 서되가 흘른다는 거. 도대체 뭘 공을 세웠다 비에 써 있는데 그 이상시러워서, “도대체 그 직감이 가들 않습니까. 그래 인제 십칠 군가 어디 그 저 전두환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 왜 외국에 가서 왜 TV 죽은 십칠 구 나왔잖아. 그때두 그만한 땀이 흘렀었다. (청중: 아웅산 사건.) 아웅산 사건, 그지? 에 그래서 그런 얘길 내 듣구 그랬는데 그걸루 얘기 끝내자구.

이토정이란 그 분이 훌륭한 분인데, 에 아산 고을에 고을살이를 왔어요, 고을살이를. 원님으로 오신 거지. 그 분이 어디 있었던고 하니, 애초에는 저 음봉면 구룡사라는 암굴이라는 디가 저, 관사가 있었어요. 그후에 요 아산이라는데 영인사라 근래 다시 에 그 뭐라고 하지, 에 관사를 늘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아산고을에 와서 그 저기를 내 줬다는 거는 내가 모두 서적에 있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구, 잘 몰르구. 들은 얘기루다가, 들은 풍월인데, 그 낭반이 여기 저 백석포 저쪽에 이거저 건너가며는, 삼교천 이쪽에 건너가며는 연못바위라는 게 있어요, 연못. (조사자: 연못이요?) (청중: 향당섬 보리밭 삼교천 밀이유.) (조사자:네~.) 그 옛날 말씀들 으른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가 연못 장터라는 디유. 장

터라구 얘기가 되더라구. (청중: 아산만 일대가 큰 장터지, 온양시 마냥.) 옛날에 그분이 고을살이 할 적에 거기가 온양시마냥 장이 섰다는 장터였었는데.(청중: 그 저 막어져 있구, 아산만이 막어져 있구.) 그 이토정 그 냥반이 고을살이 할 제, 알긴 아는데 어느 시절에 어떻게 될진 모르고, 여기가 밀이가 폭 꺼져가지구서, 우연 바다가 되었어서, 그 장터를 사는 장터 두 군데가 이런 저기를 다 철거하구 다른 데루 이사를 가는겨. 피난을 가라는 거지? 여기가 위난한 자리니까 피난을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적놈이 뭐라구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 이토정 그 냥반은 머리가 이상하게 좀 돌았군. 이런 육지가 왜 꺼져서 바다가 되느냐.” 신임을 안줘. 근데 자기가 원제 꺼질지는 몰러.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이 자기 혼자래 두 살라구, 구룡산을 올라 왔어. “나래두 살어야지 안 돼겠어.” 그래 구룡산을 올라가다 중턱쯤 올라가 보니까, 어떤 그 등짐장사 하나가 산에 올라가다 중턱쯤 와서 축자대¹⁹⁾를 꽂아 놓구 더운 폭약에 가서 드러뉘 잠을 자. 그래서 “여보슈, 일어나슈. 좀더 올라 갑시다.” 허니까 (청중: 물이 고까지 찬다는 거 아니여.) 그분이 잠자다 말구 이렇게 하더니, “허, 쟤장 자기나 올라갈 테면 올라가지 기분 나쁘게 자는 사람을 깨워.” 이러구선 도루 잔다 이거여. 그러자 그 시가가 꺼져 버렸어 그냥. (청중: 그 장터가 폭 꺼져 버렸어.) 그 마을이 그냥 바다가 돼 버렸어. 그러디 그 축자대 꽂은 디밖에 물이 안 올라 왔어. 그래서 이토정은 여기가 토정은 바다가 되는 중 알구, 구룡산 어디까지 올라오는진 몰랐는데, 그 소금장수는 “요기까정밖엔 안 올라 온다.” 그거여. 축자대 꽂은 고 꽂은 고 자리 백에 안 차. 그러니까 이토정보담 더 잘 알았다는 이런 전설이 있구.(조사자: 네.)

그분 그분이 실지는 좀 비극적인데 우리 아산 고을에 그 아전들이 이 말하자면 중앙,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 옛날로 말하자면 조정이라고. 나라 임금 계신 디를 조정이라구 그랬어. 그 지금 분덜 거 청와대래야 잘 알까, 청와대랑 같애요. 근데 그 조정에서 이 아산군살이 하는 육방관속이라구 있어. 그 사람덜이 뭘 같으냐면 지금 면의 서기와 같애요. 거 이제 뭐 거기에 이방이니 호방이니 형방이니 이렇게 해서 육방이 있었어요. 거 그분들이 존재가 없었어. 왜 그런고 하니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면 나올텐데, 이토정이 너무 알어두 병이여. 예 봄철이 돼서 육방관속들을 데리구 구룡산에 저 구경을 올라 갔어요. 말하자면 봄철에, 뭐라구 천렵이라구 그래나, 뭐라구 그래잖어 지끔. 이렇게 데리구 올라갔는데, 그 냥반이 단장을 짚구 육방관속들을 요런 돌을, 거기가 보면 천지가 돌이여. 근데 이 바위를 좀 들어 보라. 그래구 당신이 지팽이가 있는걸 이렇게 하구, 요길 좀 들어봐. 같이 들어야 돼. 그래 관속들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걸 내려서 이렇게 번쩍 들어봤다 말여. 이렇게. 들렸어 그게. 들으니까 거기 순금이 딱 차있어 거기. “이걸 너 덮어. 이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아무 시절 어떤 때 필요하게 국가에서 쓰일 꺼여. 덮어라.” 그래 덮었어. 그래 또 한군데 가서 그런 식으루 하더니 거기는 또 은이 한 가득 들었어. “그것두 마저 덮어라.” 또 덮었어. 말하자면, 지금으루 말하면 뭐라구 그러나, 옛날은 지방장관의 저기니까 사또라구 옛날에는 불렀다구 그래, 덮으래니까 덮었어. 또 한군데 가서는 또 그렇기 떠드는디, 거기는 구리가 딱 차있다 그거여. 그래 그것두 구경하구 덮어라 이거여. 이걸 아무 때구 우리가 지금으루 말하면 대한민국 필요 적절할 때 쓸거여. 근데 그게 줄을 징조라. 그 아전들한테 죽을 징조가 바로 그거여. 아 이 아전들이 그걸 캐서 먹으며는 당정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 성전 무서워서 캐 먹을 수가 없어. 사또 무서워서. 그래 사또를 죽여야 겠다. 이런 육방들이, “이저, 이 토정을 저 해쳐야만 우리가 저걸 먹겠는디.” 하는 것을 육방들이 고심을 하는 거여. 그러다가 이 냥반이 뭘 잡셨는고 하니 차령을 하시는디, 구릿가루에다가 지네 생즙을 잡셨어. 구릿가루 잡숫구, 지네, 지네 (조사자: 네.) 생즙을 내서 잡

숫구 그 후에는 무얼 잡셨는고 허니, 밤 생울, 밤 생룰이라는 것은 밤을 깎아서 속알맹이만
남긴 것. 이거를 잡쉬야 어, 구릿가루 먹구 지내생죽 먹구, 그걸 잡쉬야 지네 독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걸 잡숫는데 그 낭반이 뭐라구 말했는고 허니 차령을 했다 이거여, 들은 말에 의
하면, 그렇게 해야 재주가 되는겨. 가만히 연구하니까, 구릿가루 먹구, 지내생죽 먹구 밤만
안 먹으면 이토정일 죽일 수 있다 이거여. 이게 머리를 떠올렸어. 그걸 저, 올라구서 제네
생죽 오리구 밤 대신에 뭐를 깎았는고 허니 예, 버드나무 있지, 그거를 깎아서, 밤처럼 깎아
서, 올렸다 이거여. 지네 생죽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못 먹구, 그래 지네 독이 거기
함유되서 그 낭반이 받아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전, 아산골 아전은 고약한 고을이나, 그전
아전들은 자기 상관을 모실 줄 모르고 나쁘다. 이래서 존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청중: 거 죽을 직이 밤을 쥐야 할 턴디, 밤을 깎아 줘네! 그러니 밤 못 먹구 죽었구. 그러
구 지금 그 묘 장소가, 보령군 고정리에 보존되구 있어, 산소가.)

(녹음 불량)

근데 나중에 들어 볼래니까 하나 들리는 놈도 없고, 들 수두 없구 백 명이 덤벼두 안들려.
근데 그거는 이토정 그 낭반의 그 지팽이 차력 심으루 들린 거지. 유방관속을 힘으루 들린
게 아녀. (청중: 토정이 그렇게 유명해시 토정비결 책두내구.)

사명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유씨여. 내가 유썬디, 사명당에 그 낭반이 중이었쥬. 근데 애
초에 그 낭반이 중이 아녀. 맨 처음엔 문과에 진사 벼슬까지 하시구 그 낭반이 상처하신 후
에 뭔가 거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가족들 다 이렇게 말하자면 볼루 다 태우구서, 부처님을
모시겠다 그러구 당신이 혼저 나는 불경이나 배우겠다, 공부나 하겠다 이런 식으루 절간을
찾어가는데, 거 사명당 오시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서산대사였어요. 서산대사. 그분이 사
명당이 이러 이렇게 온다 하는걸 다 알구 오는 도중에서 가서 썬어. 그래서 사명당이 서산
대사가 제자루 그분을 모셔간 거여. 그래 그 낭반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거기서 하는데 참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불이 났어. 그래 서산대사가 인저 말하자면 스승이
지. 선생님이지 스승은. 천렵을 가자 이거여. 그래 천렵을 갔는데 어느 길을 갔는지 고장을
내가 잘 모르고 가서 놀다가 요만직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 보니까, 층암절벽에 바위 하나가
탁 깎여 내려서 백 길이 수십 길이 되는 거기인디. 거기는 밑이가 바루 큰 강인디 이렇게
강물이 흘러, 그렇기 깊은 강이여. 근데 고 전에 고 여분맹이에 이게 소나무가 하나 있어.
썬는데, 아주 기둥을 해가지구 썬서. 어쩔하게 커 올라가서 그래 노인네가 거길 가서 그 자
기 제자를 보구 “이 소나무에 올라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소나무를 타고 올라
갈 그러니까 올라가다 도루 떨어지구, 올라가다 도루 떨어지구 인제 꼬트머리에 사명당 그
분이 남으셨는데, 너희들은 못 올라가겠느냐, 일 초 내에 올라갈 수 있지. 아 거미마냥 나무
를 이렇게 하구 올라가. 그래 가다가 얼마를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오러 가봐라 이거
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올라가서 갔으니까 여길타구 내려가 봐라 이거여. 그래 그분이 거
길 타구 내려갔어. 어떡하오리까 하니까 그림 너 기행이면 거서 매달렸다 한번 떨어져 봐라
이거여. 그러니 매달렸다 그냥 툭 떨어졌어, 응 툭 떨어졌는디 아무디두 간테가 없구.

염성 3 앞.

김삿갓이라는 분은 옛날에 시인이여. 참 좋은 분인데 참 죄를 저서 땡기는 분이기 때문에
팔도강산을 다 유람삼아 땡기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여름철에 위디를 가다가 더워서 어디

정자에서 쉬는데, 그 이견 얘기여. 쉬는데 어떤 부인이 독을 술독을 가지구선 이러키 오는데 김삿갓이 원래 술을 좋아해여. 그래서 술을 어트키 취해서 먹어야 하겠는디 부인이 가지구 온 것을 다구 할 수도 없구 곤란하다 이거여. 그래서 그거이 목구멍에 넘어올 것 같여, 술이. 그래서 부인이 가는 앞에 가서 딱 이렇게 팔을 벌리구 가로 막았어. 아 왜 이러시냐구. “그 들은 게 뭐요?” “그 들은 건 왜 문소?”이거여. “그래 그 뭐냐?”구, “아 이분이 나 바쁘디 나 지금 바빠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는디 이러면 안 돼잖소.” 말이여. 그러니께 아 글씨 그 술이 술인가 그 뭐인가 그랬더니 술이라구 그랬거든. “술을 가지구 어딜 가슈?” 저 옛날에는 보리를 벼내구 글같이²⁰라는 걸 아나. 잘 모르쥬? (조사자: 네.) 보리를 벼내구 나머, 땅이 축축하며는 글콩,²¹ 글콩이라구 그러, 그걸 보구. 콩을 심을려구 하는 그때다 그렇게 하는 거여. 그래서 모하러 가느냐 그러니께, 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글을 은을라구. 글을 은어서 그 고을 원님한테 글을 제공해서 옛날에 씨앗이 없구 그러면 고을 원에 가서 이러키 글을 올려서 내가 어떠어떠하니 좀 주시오하면 주는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 글콩씨를 은으러 간라고 하는 주인디 선생님을 찾아가는 길이오. 그러믄 잘 됐소. 내가 콩씨를 은어 줄 테니까 예 그 술을 나를 주시오. 근디 그 부인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거유, 안 믿쥬? 난 믿을 수 없슈, 이 그러니 이분이 그냥 이렇게 안구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다시피 강요하다시피 반 강요하다시피 술을 빼앗아서 이분이 잔을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병에다 입을 대고서 나팔을 불어서 다 자셨어, 김삿갓이. 자 그러니 술은 뺏겼구 그 선생 찾아가서 글을 지어서 주면은 글 술쥬 한잔 대접하구 그럴려구 하는 술을 빼앗겼으니께 어체피 김삿갓이 하자는 대루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 부인이 김삿갓인지 몰러. 그냥 웃도 남루하게 입구 그랬으께 거 어디 행락에 거 참 정신이상된 사람으로 봤지 이렇게만 김삿갓인 줄은 전혀 모른 겨. 거 김삿갓이 그걸 다 마시구서 (녹음불량) 라고 있어. 옛날 도포를 입구 (녹음불량) 여기는 지금으루 말하면 인저 주머니식으루. 옛날 시인들이나 혹은 명인들 또는 옛날이 양반 고관들이 대부분 거 도포라구 했어. 그게 도포자락이여. 거기다 서 뭐 인저 내가 소지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거 인제 술을 마시구 여기를 썩 뒤져서 내는 것이 뭐냐면 지필묵이여. 지필묵. 지필묵이라면 종이루다 옛날엔 글씨 쓸라면 붓이루 썼지, 우리네 마냥 지금 쓰는 게 아니거든. 거 종지와 먹 일절을 가지구서 냐다 이거여. 내구서는 이분이 글을 쓰는 겨. 콩씨를 얻어줘야 술을 잘 은어 먹었지. 콩씨를 은어 주는 글을 써야 한다 그거여.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 그 부인은. 그 부인이야 거 옛날 부인덜야 지금같이 뭐여 글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이 뭐니 그렇지 않았단 말여, 옛날이. 그래서 이놈이 글을 쓰는데 알아 볼 수도 없어. 두루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두루말이라는 것은 종이를 요만큼 오려서 둘둘 말아서 이런 뭉치여. 그걸 이리 피구서는 글씨를 쓰는데 꾸물꾸물 꾸물꾸물 이렇게 글씨를 막 쓰는 겨. 주면서 “이 글을 원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까?” 하니 그렇다 그래. “그럼 가주 가면은 틀림없이 품씨를 줄 테니까 가주가슈.” 그래 그걸 가주 가서 원님께다 올려 바쳤다는 말이야. 그런데 원님이 그 글을 보니께 글을 잘 몰랐던지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제 이 아무리 봐도 자기로서는 그 능력이 없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은 글을 읽구서 그게 뭐라는 건지 알아야 하는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제 얘기하던 육방관속, 자기 신하에서 일하는 관속들을 불러서 이 글이 뭔가 해명할 사람이 있느냐 물으니까 다 그걸 제대로 해명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인을 불러서 “이 글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 아무 집 이런 어떤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럼 그분은 지금 어서 있었느냐 그거여. 아 근디 큰일 났단 말여. 왜냐면 그 글을 해명을 해서 콩씨를 은어야겠는디 아 그분 술먹구서 거 드러누워 있다가 가면 그걸로 끝

나는데 워디가 찾느냐 이거여. 그러니께 그분한테 되나 안되나 부리나케 찾아간겨. 찾아가니께 이분이, 김삿갓 그분이 술을 한 병을 다 잡셨으니께 걸쭉한디 거 더운 토양에 술을 먹어서 기분도 좋구한디 글랄 잠을 자는 거여. 그러니 가서 혈 수 읍이 깨웠어. 별떡 일어나 보니께 자기가 글씨준 그 부인이더란 말여. 그래 “어찌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얘길 했어. “원님이 그 글을 보구서 해명을 못하시구서 선생님을 모셔오랍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시다.” 아 그거 그분이 뉘딘 못가? 그래 그걸 갔어. 가서 이렇기 관사에 들어가니께 아 옛날에 원님이 있던디를 관사라 그래요. 관사에 썩 들어가니께 원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께 “아 내길 그러면 그렇지, 이 글을 쓸 분이 여기서 없지. 김삿갓인 줄 안다.” 그거여. 그 원님이. 그렇지 그분의 글이지. 이게 보통 글은 아니다 이거여. 거 그분을 모셔다 상석에 딱 앉히고서 “이 글을 해명을 해주소.” 그 글이 그렇기 어려울 것도 없는데 에 사또가 그걸 해명을 못하니 말여. 그 뭐라고 하니 이것도 역시 글군데 “태전이 태다하니”²²⁾ 이것이 클태(太)자여. 전은 밭전(田)자구. 태전이 태다하니 밭이 크게 많으니 말이지 “태전지태”²³⁾를 또 클태자 클태자여. 태를 “태강태망”²⁴⁾이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께 밭이 이렇게 많은데 콩씨 콩을 주기를 그러니께 바라고 또 바란다. 아주 간단한 문제여. 아 그리냐구. 그래서 콩씨를 은어다 그를 갈았더라. 이런 김삿갓의 좋은 글이 있었지. 아 그분은 아 참 시인이요. 그분이 죄를 저서 그렇지 벼실을 해도 크게 했을 분이다. 훌륭한 분이셔.

어사라구 그라든 나라의 벼실을 받아가지구서 어디 어디 지구를 암행어사여. 말하자면 암행어사라는 건 비밀 정찰하는 행위라 글까? (청중: 그렇지.) 그래서 어니 고장을 이렇게 가니까 아 참 시장도 하고 거 영을 넘어서 인가를 찾아 내려가는데 여기 산골에 깊숙하니 골을 타구서 내려오면 되는 산골에서 내려오는 참인디 아 웬 칼을, 비수를 든 사람이 뒤에서는 저놈 붙잡어라 하고 막 쫓아오구 한 사람은 죽어라구 안 죽을라구 죽일라구 그랬는지 도망질을 가구. 그런 판인디 급박하니께 안 죽을라구 도망을 가던 사람이 어디 가서 숨었다 이거여. 숨졌어. 그런디 비수를 들고 쫓아가던 사람이 박문수한테 딱 와서 당신 여기 가는 사람 봤느냐 이거여. 그것말 하면 그 대신 널 죽이겠다 이겨. 그러니 참 따분한 일니거든. 남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죽느냐 응 내 생명,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이런 단계에 올랐단 말이지. 그럴 거 아녀? (조사자: 예.) 그 저기 숨졌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푹 찢러 죽였어. 그래 그분이 어사로서 그걸 고심을 하는 거여. 그게 어티기 하면 무슨 묘기를 써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응? 사람을 내가 어사로서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일러줬으니께. 잉, 그래 고심을 한 거. 그래 워디를 이렇게 가다가 워니날 누구한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거지처럼도 하구 대니구 그분은 가지구 소지하구 있는 게 뉘고 하니 마패밖에 없어. 마패라는 것은 임금님께서 어사라구 하는 표시여. 거 말 이러키 그런거지, 잉. 그래서 언제나 그건 소지하고 다니면서두 의복은 남루하게도 댕겼다가 잘두 입구 댕겼다가 이렇기 댕기는 분이랴구. 그렇게 팔도 강산을 다 대니면서 두 자기가 다 대니면서 저 그 여기 아산골 아산골에 골 원님이 또 또 어디 도에 가서 어디 감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지금은 잘하나 못하나 전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전부 이걸 암행, 암행하는 거지. 그러구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저기 하거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거 자신 신분은 언제나 노출시키딜 안혀. 그냥 그지 행세하고 행락 거 이런 하고 하는디, 이 얘기 저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내가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어떡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안 죽이면서. 그 사람도 괜찮구 나

두 펜찰구 두 사람이 다 아무 피해 없이 할 수가 있었을 텐디 그걸 내가 상상을 못허니 어떡하면 살리겠느냐.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여. 아이구 거 여분댕이서 요만한 아이가 듣구선 말하는 소리가 “아구 어른이 그걸 생각도 못헐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 “거 뭐가 쉽냐?” “아주 쉬워요. 그거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유.” “그래 얘기해 보라.” “아니 거 선생님께서 눈감구 나무때기 하나 꺾어들구서 가면은 (청중: 그렇지. 간단한 거지.) 나보구 물으면은 난 소경인디 잘 모른다. 못 보니까. 그러면 아주 딱이서두 펜찰구 그 사람 안 죽구,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저기는 지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박문수 박어사가 “아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구선 한탄했다는 얘기에.

여기서는 웨라 하면 맹구불이라구, 맹구불이. 이게 별혼디, 맹구불이 맹정승 이렇게 얘길 했다구.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해 줄께. 그분이 온양 저거서 저거한 분인디. 맹구불이 맹정승이라고 하는 그분이 애초에 그저 탄생하기 그 직전의 얘기지. 그저 그 맹고불이라는 그 아버님이 이 그 꿈을 꿔는데 고 앞에 보면 거가 온양 중리라구 하는 디여. 앞에 보면 설하산²⁵⁾이라고 (조사자: 설하산이요?) 설하산. 설 눈설자, 설하산. 근데 그산을 맹정승이 아버님이 꿈을 꿔는디 그냥 이렇게 그냥 위띠기 입으루 삼켜 버렸어. 이상하지 그게? 그러디 자기 자기의 부인이 조반을 질라구 옛날에는 인저 불을 때니까 야궁지에 재를 쳐서 삼태기다 해서 잣간에다 이렇게 버리구서는 설하산을 이랑기 쳐다보구선 한참 말도 안 하구서 쳐다보구선은 웃고 들어가거든. 웃고 들어가. 그래서 할수없이 그 연고를 물었어. 자기 꿈을 꾸 거 있고 자기 부인이 재를 치고 갖다 버리구 설하산을 망연하구 쳐다보구서 웃고서 들어가는 것을 보구서었어. 부인이 웃었으니 무슨 징조냐구. 물으니까 제 꿈이 하두 뭐하게 꾸어서 말씀드릴야겠습니다. 얘길 해라구. 그런께 그 부인도 그와 같이 꼭 꿈을 꿔는디 설하산을 입으루다 집어먹어 버렸어. 그 큰산을. 꿈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문이지. 그런 다음에 맹정승을 잉태한 거지. 임신한 거지. 그래서 그분을 임신을 해서 사람을 대충 열 달만이면 우리가 이렇게 낳는다구 그러잖아. 그러디 이분이 뭘 알았는지 그 아버지가 맹구불이. 맹정승 아버지가 뭘 알았는지 아무 때 아무 날 아무 시에 나야 대인이 될 텐디 하냥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 거 4월달에 출산을 안 해. 그 사랑에 앉아서 때만 기다리구 연락을 취한단 말여. 거 하루는 기미가 있다구 그러니까 곧 날라 그립니다. 시간을 곱자곱자 이렇게. 인제 옛날에 인자 하는 것이 따지는 거 있어. 이거이거 곱자곱자 하더니 지금 낳으면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거든. 그러더니 생각하더니 모말 있느냐 이겨. 모말이 뭇고하니 옛날이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네모졌어요. 곡식 재는 말이여 그게. 거 모말을 빨리 거 산모 있는 데 갖다 놓그선 못 낳게 주저 앓혀라 이겨. 그러구서 내가 내려 앓혀라 할 때 앓혀라. 그러니 뱃속에서 나올라 그러구, 억지로 못 나오게 이게 막 붙드는 거지. 산모는 요동을 하고, 배가 아프니까. 그 명령이여.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겨. 그러디 얼마가 있어 때가 다 됐는지 이제 앓혀라 이겨. 그래 낳았어. 그래 낳았는디 내가 들은 풍월로는 들은 얘긴디 나 올라구 하고 못나오게 하구 모말에 깔아 앓혔으니까 그분이 나오다 목이 구불어졌다. 해서 별호를 맹구불이라 했다.(웃음) 거 조금 우습지?

【염성리 설화4】

영인면 염성리 노인회관, 1993. 1. 18., 류지원, 박은실, 유주연 조사

강일남(남, 73)

박색이나 바느질에는 박사인 박 어사 부인, 앓은뱅이 맹 정승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

근데 이 암행어사란 사람이 박문순데, 아주 인제 각주를 인제 도를 떠나서 돌아다니는겨. 돌아댕기다 해가 저가주구 길가집 주막에 들어가서 외쳤지. 하루 저녁 묵어가자고 그랬어. 그래서 니 인제 그러니깐 암행어사지 뭔지도 몰랐지. 그냥 인제 하루 저녁 쉬어가자구 들렸는데 쉬어가라구. 들렸는데, 저녁에 밥상을 들구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삭시가. 그러니까 암행어사 소리는 못하구 침에 그 삭시를 저녁을 먹구 그 삭시에 반해가지구 말여.수청을 들라구 들여보냈는데 그런 색시를 들여보낼 수 있느냐 이거여. 근디 그 집이 딸을 하나 뒀는데 아직 남한에선 제일 못생긴 색시여. 꿈보여. 대단히 볼 수가 없는 여자라 이겨. 그래 수청을 안 들 수는 없구 인제 암행어사인 줄 짐작은 했으니까 안 들여보내면 큰일 나겠으니까 주인이 말이야 인제 저녁밥 잘 하구 밤중에 그 삭시를 들여보낸다구 약속을 했는데 불을 끄고 기달리라고 그랬어. (웃음) 불을 끄고 기달리했는데 아주 남보매 얼굴 못볼 놈의 삭시를 말여 깜깜한 데 들여보냈단 말여. 아 불도 안 켜놓고 자는데 그 색신 줄 알고 하룻밤을 잤을 꺼 아녀. 그 이튿날 아침에 밥상을 그 저녁에 데리구 들어갔던 색시가 들고 가. 하루 저녁을 이 꿈보 색시가 잤는데 마침 가다가 그날 저녁에 인제 유산이 됐어. (칭중: 임신이 된거지.) 어, 임신이 됐어. 됐는데 이게 인제 열 달만에 나왔을 꺼 아녀? 거 아들을 낳는데 이걸 키우는 거여. 거니 어떤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갔는지 모른단 말여. 지나가는 노객이 인저 자고 갔는데 그 삭시가 참 박색이 언내 가져서 낳으니 뉘 아들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그랬던 노인네 얘기가, 그랬는데 이 박문수란 사람이 대궐에서 그 그 사람이 인제 이 환갑 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이 한 열 하나 너덧 살 됐을 거여. 근디 소문은 나 알지. 거 박문수라는 사람이 대궐에서도 아들이 읊어. 거니까 인제 이 사람 환갑 잔치를 한다구 소문을 내서 큰 잔치를 하는데 그 박색의 아들이 거 박문수 아들 아녀? 그래 이걸 어트리 보내야 겠단 말여. 근디 그걸 알고 가주고 개나리 못집은 해줘서 그 집이를 찾아가게 뒀는데 대궐에. 그런게 너 엄니가 어딴냐고 할게 아냐? 그러니까 아무 데 아무 데라구. 그 쳐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잔 생각도 나구 틀림없단 말여. 그러면 그 마누랄 데려와야 할 거 아녀. 그 아주 일색일 줄 알았는데 그 일색은 색시는 열루 간지. 그 꿈보한테 가진 애가 열한 살 넘었는데 아들을 찾아냈는데 마누라를 찾아야 할거 아녀. 이거야 그래서 안 보낼 수는 없구 명령이니까 가마에다 태워 보냈다는 거여. 그러니 뭐 참 열어보니까 박색이니 먼 목 읊지 뭐. 그때 본 거 하구는 천지차이지. 게 어티기 뻘냐면 인제 대궐에서 인제 애길 하니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꿈보 여자가 바느질을 하는데 아주 박사, 아주 박사여. 근디 대국서 이 제복이라구 있어. 상제 입는 것. 그게 수 천 쪼가리래. 제대로 되믄. 부치고 쪼게 찢르구 하믄 여기 쓰는 것까지. 그거를 대국서 죄 데려오라는데 우리 남한의 여자는 그걸 못하잖어. 그래 그 박문수 마누라가 대궐에서 승낙을 받구 잤대는 겨. 그래서 바느질을 제일 잘 하구 쥘 못 생긴 박상은 박문수 마누라라는 얘기를 노인네한테 그런 애길 내 들었지.

옛날부터 그 왜 맹정승, 맹정승 하는데 맹정승이 앓은뱅이, 말하자면 정승이 되셨지. 그 정승이 된 원인을 내 얘기할 것 같으면, 시아버지 밥상을 들고 며느리가 들어갈 것 같은 옛날에는 바로 문을 열구 들어갔다가 놓구 바루 획 못 돌아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구 밥상을

들구 들어가서 시아버지 시아버지 앞에 놓구 뒷걸음질해서 살살 나와서 뒤꿈치를 내딛구 문을 닫어. 그만큼 그만큼 엄중하게 해야 되. 그런데 장가는 들었는데 장가들구 당참 아들이 서울로 올라갔어, 한양으루. 벼슬을 따러 올라갔는데 이 시약시를 영 신랑이 아냐. 아들이. 그래서 인저 시집은 갔지만 헛간 거야. 신랑은 서울에 있구 인제 시아버지하구 사는데 꿈은 꿈은 누가 태몽꿈을 꿴느냐른 며느리가 꿴어. 꿈을 꿴는데. 꿈을 꾸구 밥상을 인제 들구 들어가서 밥상을 놓구 문을 닫으려구 하는데, 돌아서면서 그 메뉴리가 뺑끗 웃거든. 생전 안 하던 버릇을 한다 이거여. 그렇게 곱던 게 시아버지 앞에서 뺑끗 웃고 돌아서니 무슨 조건이 있단 말여. 밥상을 가질러 들어왔는데 며느리 보고 오늘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 어떻게 된 거냐구 물었어. 어떻게 된 거냐구 하니께, 엿저녁에 꿈을 꿴는데 앞의 큰산이 비추어서 달처럼. 자기 입으루 들어왔다 이거여, 산이. 그래서 (칭중 : 설화산 얘기구먼.) 응 설화산. “이상해서 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웃었습니다.”하고 행복을 했다는 거야. 하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생각을 하니께 태몽 꿈을 꾸기는 꿴는데 신랑이 있어야 아들을 낳지. 아들은 오라 오라 연락을 치고 뒤 하인을 보내 봐도 안 왔다는 거여. 그 직계 하인이 새끼 난 암소, 암소를 하나 달랜 거. 그 새끼난 암소를 새끼 떼 놓고설랑 갔어. 서울로 끌고가설랑 소를 메 놓고 인저 가자구 그러니깐 소가 그 새끼 떼 놓고 간 소가 얼마나 울어. 웅웅 거리구. 그래 소 끌구 간 높이 그랬더뎸. “소 소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새끼를 떼놓구 왔는데 에 에미가 아들을 찾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오라구라는데 안 내려오시겠어?” 그래 그 부모명을 거스를 수가 없이 그 사람이 또 내려온 거야. 이 해가 지니 들어왔는데 이걸 한 방에 넣어줘야 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겠거든. 그래 저녁상을 저녁을 먹구 죄 아들방으루 들어갔대. 들어가는데 그 제 아버지가 아들방을 지키는 거야. 그래 그 꼼작없이 하룻 저녁을 자구 그 이튿날 그냥 내뺐거야. 근디 이 인저 유산이 되가지구 어린애가 들었다구. 옛날엔 시계가 없어요. 놓는 거 본 게 아니라 옛날 노인네들이(조사자 : 웃음)우리가 그런 짐을 매러 가든지, 달밤이던지 말여. 시방 열두 시가 낮에 딱 되면 말여 마당에가 서서 봐요 이러키 딱 시방 열 두시며는 바늘 대고 꽃꽂이 서면 요 머리가 발 밑에 와 있어. 그래 며느리나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여 짐을 매러 나가면 들에 나가면, 서 봐서 머리 그림자가 발밑에 있거들랑 점심을 먹으러 오쇼. 했다는 얘기여. 아들이구 영감이구. 그러디 열두 시 인저 이렇게 되서 어린애를 낳게 되는데, 만약 열두 시 안에 낳면는 큰 역적을 낳게 생겼어. 그러니께 시아버지가 박사지. 그래서 열 두시 안에 낳면은 인제 집안에 큰 망조가 들어갈테니까 말여. 콩자루로 콩을 한 말 담아서 며느리 더러 깔구 앉아서 애를 낳지 말라구 말여. 그리구 마당에서 등진을 지고 서서 해가 곧두서 가지구 발바닥 밑에 그림자 올 때까지 마당에 서성했다는 거. 그래 시방 말이지 자네덜 보고 어린애 낳구 싶는데 얼른 낳지 못해 우는데 안 낳고 콩자루 깔고 앉았겠어? 예, 힘들어서. 게 콩자루 콩자루 깔고 앉아서 참, 참다 참다 죽겠는데, 시아버지가 더 몸달을 거 아녀. 날 사람보덤두. 게 그림자가 이 발꿈치 앞으루 지나가니께 인제 일어서라 그랬어. 게 일어서다 말구 언내²⁶⁾를 낳는데 하두 애를 써서 얹은뻥이가 되고 말았어.(조사자 : 예.) 그래서 거기서 멍씨가 얹은뻥이 정승이 난겨. 얹은뻥이는 얹은뻥이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구선 이 얹은뻥이, 고부랑 정승이라는 거지, 인제. 구부러진 정승이라구. 맹구불이 저 저거 났다구. 그 이약 들었어.

【염성리 설화 5】

염치읍 염성 1 리, 1993. 1.19., 류지원, 박은실, 유주연 조사

구자현(남, 66)

너도밤나무 때문에 살아난 울곡, 오성을 골탕먹인 한음의 부인

울곡 선생이, 울곡 선생 유래를 얘기 할 거여. 울곡 선생이 강원도 강릉서 살았대요. 근디 인저 저 조종이라는 건 서울 거 지금 중앙청을 얘기하는 거쥬. 예 거기를 참 저 아침이면 주름을 잡든지 해 가지구 조회를 나가는 모양이여, 서울루다가. 강릉서. 게 저녁에 집으루 퇴 거 가는데 퇴궐을 하러 가는 길인데 주막을 들러야 된대요. 주막이 아마 진분이 거기 있대나 봐요. 대관령 넘어 오면 지부가 첫동네지. 거기서 주막이서 하루 저녁을 참 유해 가게 뵈는데, 그날 거기서 꿈을 꿔대요. 꿈을 거 태몽꿈을 꿔나 봐. 근디 그 태몽꿈에 거기 있는 그 주모하고 참 혼사를 이루어지면 그 저 큰 벼슬아치를 할 사람이 인저 탄생한다는 이런 태몽꿈을 꾸 모양이여. 그런디 거기서 같이 동거를 못했단 말여. 거 집이 와가지구서 인저 동거를 해야 한디 어머니한테 인저 그런 얘길 할 테쥬. 거 결혼하겠다구. 그게 꿈을 뵈여, 그날 태몽꿈 꾸길 아 자기 영감한테 그런 얘길 한 모양이유. 공께 울곡 선생의 아버지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길 행께 태몽꿈이거든. 근데 부인하고 동거를 하면 참 큰사람이 아마 탄생해 가지구선 태몽꿈을 꾸 모양이여. 근디 이제 도로 인저 참 가보라구 한 모양이여 여기를. 빨리 가보라구. 가보니까 아무 것도 읊다 이거여. 집두 절두 폐가여. 공께 고기서 조금 내가 좀 알쏭달쏭해여. 그러다가 참 그 예 절에 중 지금 말하면 주진가 중이 동냥을 얻으러 왔단 말여, 그집으루. 울곡 선생네 집이루. 동냥을 얻으러 왔는데, 글썽 얘기 순서가 좀 배 낫것 같야. 배껴어두 좀 들어유 잉? (조사자: 예.) 동냥을 참 후이 준 모양이유, 중을. 그 후이 주고 줬는데 받아가지구 가메 돌아서서 하는 말이 참 낡기는 잘 낡았는데 아들이 그집 아들이 잘 낫는데 호상이 같, 상이래유, 그 아들이. 공께 이 아들을 뒤가지고 호상이를 (청중: 호랑이한테 물려간 걸 그려.) 응, 이 아들을 뵈는데 호상이 간다니 기가 맥힐 얘기여. 돈은 많은 사람이. 그래 그 중을 불렀유. 인저 가는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소리냐구. 호랭이가 호상해 간다니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구 호상이 같 사람이라구. 그러면 죽는 거는 아난디 살릴 수는 읊느냐. 그러면 살리자면은 그 뒤이다가 밤나무 천그루를 심어라 (조사자: 집 뒤에다요?) 잉, 자기네 산이다가 천그루를 밤을 심으라 이거여. 그래서 울곡은 밤 울(栗)자에다 울곡아냐? 그래서 울곡이라 이름진거여. 참 그 울곡 선생 아버지가 그렇게 꿈을 꿔네. 쪼금 야까 그건 착오여. 근디 내가 조금 아마 췌속이 안 맞아 돌아가는 거 같은디. 이? 그래서 인저 그 때가 뵈어. 참 죽을 시간이 뵈어. 근디 밤나무를 인저 천 그루를 심으니까 심었을 게 아녀. 고때 좀 쪼금 해 봐. 고때가 내가 (녹음불량) 그리고 와서 밤나무 실 적이 구백구십구백이 읊다구 그랬어. 근디 고걸 내가 조금 미비하니까 고걸 수수께끼로 해봐. 아녀 글썽 그걸 그걸 내가 잊어먹었어. 왜? 천개를 심었는디 아흔아홉개, 구십구개밖에 안 되여? (청중:나도 몰려유, 몰려유.) 거 좀 해보슈. 회장님 알거여. (청중:얘기를 하던 사람이 하.) 아니 글썽 고기 잊어서. 잊어서그리하는규. (청중: 예, 그게 밤나무처럼 생긴 굴참나무라고 있어유. 나두 밤나무라고 해서 천수가 뵈다는 거여.) 굴참나무가? (조사자: 불참나무요?) 굴참나무. 세보니까 구십구거던, 구백구십구여. 그 한 그루 어떤냐, 그럼 나는 나두 기다. 이렇게 거 굴참나무여. 그러면 천 그루 아니냐. 그러면 잡아갈려다가 천 그루니까 못 잡아간다. 그래서 도루 갖다 줘. 호랑이가. 그래서 울곡 선생이 그래서 울곡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여. (청중: 거 울곡 선생의 어머니는 뵈 줄 알지?) (조사자: 사임당) 그렇지 사임당. (청중: 이 그분이 신씨여. 나를 신자. 신사임당. 나

라에서 호를 베실여, 부인두.) 그렇지. (칭중:어거지로 워트기 그냥 좇어 맞췄네.) 아 잊어 먹었어.

(칭중: 이항복이를 (조사자:오성?) 오성대감이라구 그러지. 오성대감이 이항복씨지. 그래구 오성대감의 배위자되시는 배위자라면 지금은 마누라여. 그분 되시는 분이 권썩디 그 권부인의 아버지는 우리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그 군의 육군대감쯤 되는 분여. 거 그분이 누군고 하니 권율이라고. 권썩디 권율 장군여. 거 권율 장군이 이항복씨 그러니께 오성대감의 장인이지.) (칭중들 설왕설래하여 소란스러움) 옛날에 한음하고 오성이라는 분이 있었어. (칭중: 오성대감) 오성대감이지. 게 오성대감하고 한음하고는 아주 친절한 사이여. (조사자:예) 게 이 오성대감이 한음네 집 울타리를 지나가다 담 너머를 쳐다본 거여. 궁께 한음네 집 근처를 쳐다본 기여. 쳐다보니까 한음부인이 옷통을 벗고 이를 닦거든. 거 보니까 여기 사마구가 하나 있어.그렇게 오성이 이걸 봤겠다. 하 인저 자료 하나 맨들었다구.(조사자 칭중웃음) 한음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긴겨. “나 느이 마누라하고 같이 지냈어.” “미친놈!” 보통 아주 그런 농담을 흔히 하는 겨. 미친 놈이라구. “엠마, 진짜여.” “이 짜식 밤낮 잔소리만 혀. 그것말두 분수가 있지 그렇게 말을 혀.” “아 임마 진짜여, 느이 부인 옷통 좀 벗어봐라 혀. 사마구가 있나 없나.” 아 그저 가서 자기 부인 좀 거기를 봤, 보니까 틀림없이 사마귀가 있네. 희안하다 이거여. 이게 알쏭달쏭혀. 하 요새 트래비에 알쏭달쏭 나오듯이 그게 참 알쏭달쏭혀. (조사자: 웃음) 그 이게 자기 부인보구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구 이거 틀림 없이 그런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사마귀를 보니까 그런 것도 같거든. 그래 숙제가 인제된 거여. 그럴 거 아냐? 숙제가 된 거지. 그래서 한 자기 부인보고 그런 저 의심을 둔기여. 자기 부인이 그걸 알았어. 게 참 송편을 참 이렇게 해가지구 송편 제일 고서 좀 크게 해가지구서 거기다가 대변을 그 속에다 송편 속을 능겨. 그래가지구서 초청을 했어, 오성을. (조사자: 예.) 그런데 오성이 또 욕심은 많아. 하난 조금 들 담구 하난 많이 담았거든. 게 오성은 자기 오성 앞에 죽은 걸 봤어. 지사 줄라면 많은걸 주지 뭘 또 바꿔 냈겠다. 벌써 한음 부인이 알아 그걸. 그 오성 성질을 알기 때문에 욕심많은 줄을, 아 그래 인더 이걸 먹으라고 젓가락을 집어서 딱 깨물으니께 어랍쇼 똥이 탁 나오지.(조사자: 웃음) 궁께 그게 참 요지경이지. 그 장면이여 말이 그렇지. 그러니께 한음 부인 하는 소리가 “그짓말 하는 놈은 똥을 먹어야 되여.” 을마나 쟁피하.(조사자: 웃음) 그렇게 오성이 알긋은 사람이여. 이상 끝.

【염성리 설화 6】

염치읍 염성 1 리, 1993. 1.19., 류지원, 박은실, 유주연 조사

맹우재(남, 67)

검은 암소의 묘

거먹 암소 얘기가 안 나와서 내가. 거 정승 할아버지가 거 거먹 암소를 타고 땡겼거든. 거 거먹 암소가 워터키 생겼냐면은 그 하루 정승 할아버지가, 우린 정승 할아버지라구 그러. 저 이름을 안 불르니 그 정승 할아버지가 아침을 잡수구서 이렇게 산을 가는데 산이 그 설하산이를 여전 올라땡기셨다. 근디 나뭇꾼도 있고 저기한테, 나무꾼은 저마직이 있구 한디 거먹 암소가 한 마리가 워서 숲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거든. 근디 그거를 보구서 이렇게 집

이 오시는데 자꾸 거 암소가 따라오드라. 그 암소가. 꺼먹 암소가, 그래 이 집이까지 데리고 와 참 데리고 와서 저기하고 이 암소가 자꾸 이 정승 할아버지를 따라댕기시드라. 그래서 이거 참 과거를 보구 저기 하는데두 그 암소를 타구 참 저 한양까지 갔다오시구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저 무덤이 정승 할아버지 고 밑에 소 무덤이 있다구. 그것만 내가 아는 거. 소 무덤이 정승 할아버지 고 밑에 있어 지금도. (청중: 지금 그러면 맹씨 그 정승 으른의 몇 대 손 인겨?) 내가 18대.

1) 첫대 : 열쇠

2) 떠인다 : 빌려 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3) 아태조 : 이태조. 이성계

4) 화개화락타향유 : 화개화락타향루(花開花落他鄉淚)

5) 운거운래고향사 : 雲去雲來故鄉思

6) 귀가에 약문군초색 : 귀가약문군소식(歸家若問君消息)

7) 조조지지참자하 : 아래의 '조조지지답례하'를 잘못 말한 것.

8) 조조지지답례하 : 早早遲遲答禮何

9) 철패 : 철퇴(鐵槌). 쇠몽둥이.

10) 善竹橋頭血

11) 人悲我不悲

12) 國破國亡後

13) 不死更何後

14) 秋虎渡水

15) 청매포추 : 청매포출(靑매抱出).

16) 渴馬飲泉

17) 何謂牛名

18) 전당大有功

19) 지계 작대기

20) 글갈이 : 그루갈이

21) 글콩 : 그루콩

22) 태전이 태다하니 : 太田이 太多하니

23) 太田之太

24) 태강태망 : 태망태망(太望太望)

25) 설하산 : 설화산

26) 언내 : 어린아이, 아기